

연구보고서 2010-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 (2015-2020)

2010. 8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 (2015-2020)

연구자 : 임성복(선임연구위원)
김기희(책임연구위원)
황혜란(연구위원)
김태현(연구위원)
강영주(연구위원)

제 I 부 총론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3
2. 계획수립의 목적	4
3. 계획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대전경제의 발전목표 및 발전지표

1. 대전경제의 발전목표	9
2. 대전경제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	11
3. 목표연도의 경제관련 발전지표	15
4. 연도별 목표사업	23
5. 대전경제발전을 이끌어갈 핵심플랜	28

제3장 대전경제 현황 및 혁신역량 분석

1. 대내외 여건분석	34
2. 산업구조 분석	41
3. 혁신역량 분석	53

제4장 대전의 도시발전 비전 및 관련계획 검토

1. 대전의 위상변화	58
2. 대전의 도시발전 비전	65
3. 행중심복합도시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 연계 검토	88
4.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95

제Ⅱ부 계획의 추진

제1장 세계적 수준의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

1. 육성비전 및 추진전략	125
2. 기술사업화 촉진 및 첨단 벤처기업 육성	129
3.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한 특구 고유사업	142
4.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148

제2장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1. 육성비전 및 추진전략	160
2. 4대 전략산업 육성	162
3.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183

제3장 제조업 혁신환경 조성

1. 육성비전 및 추진전략	190
2. 제조업 생산기반 확충	190
3.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	223
4. 기업유치 및 고용증진	243
5. 충청권 혁신네트워크 구축	259
6. 산업지원 금융시스템 구축	271

제4장 중부권 중추서비스 기능 강화

1. 육성비전 및 추진전략	282
2.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290
3. 에듀테인먼트 인프라 구축	305
4. 웰빙산업기반 구축	315

제5장 물류유통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1. 육성비전 및 추진전략	323
2. 국제통상 및 수출역량 강화	328
3. 물류유통기반 확충	339
4. 재래시장 활성화	347
5. 권역별 상권 활력 증진	357

제6장 고부가가치 대도시 근교농업 육성

1. 육성비전 및 추진전략	372
2. 명품·특작생산 증대	380
3.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386
4. 그린투어리즘 사업 확대 추진	391
5. 생산기반의 정비 및 현대화	397
6.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	401
7. 농산물유통 시스템 개선	405
8. 수출농업구조 구축	413
9. 축산업 육성	415

제Ⅲ부 사업예산 계획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 및 조치결과

표 차례

< 표 I - 1 > 인구지표	15
< 표 I - 2 > 지역내총생산 발전지표	16
< 표 I - 3 > 산업구조 발전지표	16
< 표 I - 4 >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지표	18
< 표 I - 5 > 경제활동인구 발전지표	18
< 표 I - 6 > 사업체 및 종사자 발전지표	19
< 표 I - 7 > 수출·수입 전망	20
< 표 I - 8 > 교통 전망	20
< 표 I - 9 > 주택보급 전망	21
< 표 I - 10 > 상수도 전망	21
< 표 I - 11 > 기술혁신 패턴 비교	37
< 표 I - 12 > GRDP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및 입지계수	43
< 표 I - 13 >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	44
< 표 I - 14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성장기여율 추이	46
< 표 I - 15 >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연평균성장률 및 전국대비 비중	47
< 표 I - 16 > 제조업 종사자수 및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 추이	48
< 표 I - 17 > 주요 제조업 구성비(2004)	49
< 표 I - 18 > 주요 제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49
< 표 I - 19 > 서비스업 구성비 및 입지계수(2004)	50
< 표 I - 20 >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추이	51
< 표 I - 21 > 노동생산성 향상의 산업별 분해	52
< 표 I - 22 > 16개 시·도 혁신자원 비교	53
< 표 I - 23 > 지역혁신여건 비교	54
< 표 I - 24 > 실리콘밸리와 대덕의 사업화 비교	55
< 표 I - 25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투자 및 연구자원 현황	55
< 표 I - 26 > 주요 경쟁클러스터와 대덕의 글로벌화 비교	57
< 표 I - 27 > 대덕과 실리콘밸리의 사업화 경쟁력 비교	57
< 표 I - 28 > 주요 여가관광자원 분포 현황	70
< 표 I - 29 > 주요 자연관광자원 분포 현황	71
< 표 I - 30 > 광역도로망 현황	75

< 표 I - 31 > 광역도로망 구상	78
< 표 I - 32 > 광역철도망체계 구상	81
< 표 I - 33 > 대전·충청권내 창고업 등록 현황	85
< 표 I - 34 > 대전광역도시권 물류시설 확충계획	86
< 표 I - 35 >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규모	88
< 표 I - 36 > 광역생활권 도시별 기능분담	90
< 표 I - 37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93
< 표 I - 38 > 중심생활권의 정비 방향	101
< 표 I - 39 > 대전시 도시공간구조 구상	104
< 표 I - 40 > SUPERB-DAEJEON TOURISM VISION 2020	117
< 표 I - 41 > 권역 설정 요약표	120
< 표 II - 1 > 2010년 성과 목표	127
< 표 II - 2 > 2015년 성과 목표	128
< 표 II - 3 > 외국기업 유치전담기구의 기능	151
< 표 II - 4 > 특구 지역 과학문화 행사 현황	152
< 표 II - 5 > 미래신산업 혁신역량	184
< 표 II - 6 > 공업지역 유형별 정비방안	194
< 표 II - 7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계획	199
< 표 II - 8 > 대전1·2산단 지원시설 현황	200
< 표 II - 9 > 산단지원시설의 조성계획	201
< 표 II - 10 > 산업단지내 도로 및 주차시설계획	202
< 표 II - 11 > 대전광역시 제조업 생산액 전망	204
< 표 II - 12 > 대전광역시 도시형 산업단지 신규수요 예측	204
< 표 II - 13 > 기능별 토지이용	213
< 표 II - 14 > 기능별 토지이용	216
< 표 II - 15 > 기능별 토지이용	219
< 표 II - 16 > 기능별 토지이용	222
< 표 II - 17 > 외자유치 성공국가의 유치전략	246
< 표 II - 18 > 대전·대덕의 R&D 및 산업 혁신역량	261
< 표 II - 19 > 천안·아산 R&D 및 산업 혁신역량	262
< 표 II - 20 >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서비스 수요 변화	276
< 표 II - 21 > 대전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286
< 표 II - 22 > 서비스업 업종별 특징(경제 기여 차원)	287

< 표 II - 23 >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강점과 약점	291
< 표 II - 24 > 프로그램별 사업명 사업내용	298
< 표 II - 25 > R&D지원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안)	304
< 표 II - 26 > 유통산업의 GRDP 및 고용인구 비중	325
< 표 II - 27 > 대전의 유통업체 현황	325
< 표 II - 28 > 도·소매업체 현황 비교	325
< 표 II - 29 > 상권의 유형별 구분	361
< 표 II - 30 > 광역형시장 육성방향	363
< 표 II - 31 > 지구형시장 육성방향	365
< 표 II - 32 > 근린형시장 육성방향	368
< 표 II - 33 > 농가 및 농가인구(2005년말 현재)	373
< 표 II - 34 > 특화작물 선정 육성사업	383
< 표 II - 35 > 국내에서 재배되는 작목의 특성	384
< 표 II - 36 > 채소재배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385
< 표 II - 37 > 그린투어리즘 대상지역 특성	394
< 표 II - 38 > 국내 농업 교육기관	404
< 표 II - 39 > 농산물 직거래 거점의 적정입지	406
< 표 II - 40 > 농산물의 판로개척사업 유형	407

그림 차례

< 그림 I - 1 > 새로운 지역활성화 전략	11
< 그림 I - 2 > 기술융합에 따른 미래 산업 변화	38
< 그림 I - 3 > 세계 각국의 주요 혁신클러스터 육성 현황	39
< 그림 I - 4 > 산업구조 변화 추이	45
< 그림 I - 5 > 대전광역시권 공간범위	66
< 그림 I - 6 > 여가관광자원 분포	71
< 그림 I - 7 > 관광네트워크 구상 및 여가공간 배치도	72
< 그림 I - 8 > 대전·충청권 교통망 현황도	79
< 그림 I - 9 > 도로 구상도	80
< 그림 I - 10 > 철도 구상도	81
< 그림 I - 11 > 대전광역시권 물류체계 구상도	87
< 그림 I - 12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치	89
< 그림 I - 13 > U-행복도시의 미래전망 예상도	91
< 그림 I - 14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94
< 그림 I - 15 > 광역도시골격 구상도	102
< 그림 I - 16 > 도시공간구조도	105
< 그림 I - 17 > 생활권 구분도	106
< 그림 I - 18 > 대전지역혁신 추진체계 구성도	113
< 그림 I - 19 > 행정구역별 개발권역	121
< 그림 II - 1 > 주요 혁신클러스터 현황	161
< 그림 II - 2 > 4대 전략산업과 산업별 특화분야	165
< 그림 II - 3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방향	206
< 그림 II - 4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방향	225
< 그림 II - 5 > 대전-충남 전략산업 협력가능 분야	264
< 그림 II - 6 > 중부권 지역 기술혁신센터 개념도	268
< 그림 II - 7 > 중소기업체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	274
< 그림 II - 8 > 관련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체계도	288
< 그림 II - 9 > 차세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세계시장 구도	293
< 그림 II - 10 > 비즈니스센터 협력 체계도	298
< 그림 II - 11 > 그린투어리즘 개념도	391

< 그림 II - 12 >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399
< 그림 II - 14 > 지역농업기술개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402
< 그림 II - 15 > 통합 쇼핑몰 구축 예시도	410
< 그림 II - 16 > 농산물 B2B 전자상거래 체계도	411
< 그림 II - 17 > 공동계산제 추진 절차	412

제1부
총론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1)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본격화 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역·경제·산업입지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과거의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뀌는 등 지역단위의 경제적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국경없는 무한 기술경쟁 시대에 생존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해서 산업부문에서 효율적인 기술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시장 확보,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다이나믹한 변화와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역단위에서의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됨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역적인 수용기반을 구축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新중심도시, 과학과 국방의 중핵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제고해 나가고, 국민소득 3만불, 5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속의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2) 지역혁신 및 경제역량 극대화

-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 산업체, 혁신주체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혁신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발전 방안을 적절히 마련하고,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힘써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의 원안대로의 추진에 따른 산업경제 기능의 강화와 특성화 사업의 발굴, 「대덕연구단지개발특구」의 조성 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시의 대응전략 마련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
-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5~2020), 대전비전 2020, 2020대전 도시기본계획, 대전광역권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등의 계획에 부응하는 부문별 경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3) 균형있는 산업발전 비전 제시

- 취약한 지역 제조업체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원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의 산업내 비중을 제고하고,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구조고도화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기반 마련
-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수립과 이의 착실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고,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 산업활력 증진, 고용창출 등이 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과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1차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특성 있는 산업 발전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산업간 권역간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계획수립의 목적

- 대전은 향후 대한민국 新중심도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상생·상보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국민소득 3만불 조기달성과 선진한국을 열어가는

연구개발특구 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서의 발전전략 수립

- 대전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경제·사회·문화발전에 부응하는 중부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 발전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으로 친환경적 개발방안 강구
- 최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경제발전 과제와 도출 및 발전방안 제시 필요성 제기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와 함께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 등 시급한 경제현안에 부응한 체계적인 경제운용의 틀을 마련
- 지역내 산업부문간, 지역간·계층간의 균형있는 발전 유도를 위한 지역 잠재력과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전시민들에게 대전의 미래경제에 대한 명확한 발전목표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희망과 자신감 있는 민관협력의 좌표를 제시
- 장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기대되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 전략산업,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과 함께, 제조업 및 성장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조업 생산기반 확충,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산업지원 금융시스템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우리 지역의 대응사업 성격으로 품격있는 국내 최고수준의 에듀테인먼트 및 웰빙산업의 육성 전략을 강구하고, 나아가 산업간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전통제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산업 구조고도화,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반 조성 방안 제시

3. 계획의 범위 및 방법

1)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대전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539.70km²를 대상으로 하되, 인접지역의 주변 여건을 고려함.
 - 1차적 범위 : 대전광역시 전역
 - 2차적 범위 :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구역

(2) 시간적 범위

- 계획목표연도 :
 - 2015년(중기목표연도)
 - 2020년(장기목표연도)

(3) 내용적 범위

- 대전지역의 사회·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토공간상 대전광역시의 위치와 역할을 분석하고, 21세기 대전발전의 전망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21세기 대전의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발전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지표 설정 및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함.
-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경제지표를 추정하여 미래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 수립의 기준을 제시함.
- 합리적 발전 목표의 설정 및 개발전략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역점시책을 현실

화시킴.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계획, 2020대전도시 기본계획, 대전권광역개발계획,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대전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 대전역세권기본계획, 대전권관광개발계획 등의 지역개발 관련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
- 과학·기술, 교통, 관광, 도시계획, 정보화 등 관련 부문에 걸친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발전계획을 제시
-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 도시화, 대한민국 新중심도시로서의 발전 과제 및 대응방안 제시

2) 연구방법

(1) 계획수립의 전제조건

-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모색 및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
- **민선5기 대한민국 新중심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첨단 경제도시 조성 전략 목표에 부응한 사업 발굴 반영**
- 대전 지역을 둘러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대전경제의 발전 역량 및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구상
- 사업부문별 중장기 대전경제발전 계획을 마련, 체계적인 발전방안 강구
- 현 시정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 미래의 변화전망 수용, 최대한의 사업 도출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조화를 이룬 경제발전계획 수립

(2) 계획의 방법

-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 운용의 합리성 등 현실적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증시하면서 사업량과 사업예산을 반영함
 -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 할 법, 제도적인 정비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 제안과제로 정리
- 세부사업 분야별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분야별 사업목표 및 방향, 과제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수립,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
- 실무부서의 경험과 현장감을 계획에 충분히 반영코자 『연구진-실무자』 간 긴밀한 협력채널 마련
- 계량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지표개발 및 데이터 제시

제2장 대전경제의 발전목표 및 발전지표

1. 대전경제의 발전목표

1) 각 산업부문간 균형발전

- 1차-2차-3차 산업간의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정착해 나가고, 생산·유통·소비의 전 경제활동 영역에 있어서 성숙된 도시경제를 창출함
- 계획기간 동안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을 25% 수준(현재 19% 수준)으로 상향하고, 서비스업 가운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을 큰 폭으로 신장시킴
- 제조업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분야 제조업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부문 내에서도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을 크게 높여 고부가가치형의 산업구조를 달성
- 취약한 중소제조업 및 유통업, 건설, 음식·숙박업 및 농업의 산업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영세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

2) 체계적인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개발 성과의 생산현장으로의 활용과 연구성과의 생산화, 전문형 기술금융체제의 구축을 통해 산·학·연이 조화된 세계적인 첨단산업형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 전문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벤처생태계의 활성화, 산·학·연 연계 확대 및 인

프라의 확충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여건 조성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정착화로 첨단산업분야 기술기반 기업을 대량 육성하고, 해외유수의 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를 통해 역대 경제가 본격적으로 글로벌화 하는 성숙 경제로 이행

3)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주체간 협력 강화

- 지역의 혁신 주체인 시와 자치구 등 각급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사업체의 협력기반을 강화
-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체제를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하고, 전략산업 중심의 혁신지향적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혁신활동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과의 유기적인 결합과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대전지역의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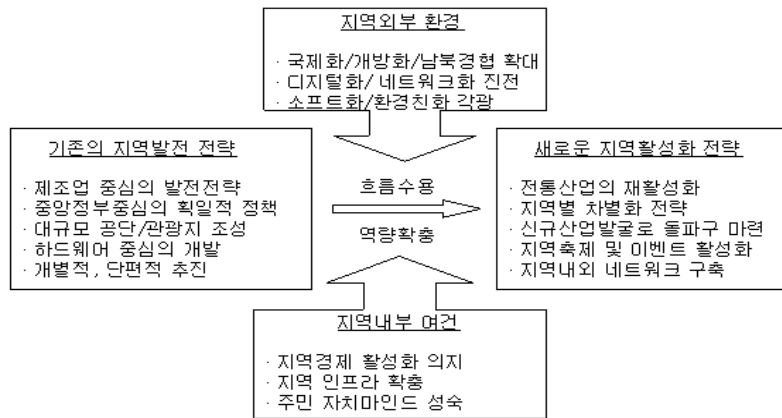
4) 고부가가치 지향적인 신산업 기반 확충

- 보다 풍요로운 도시의 문화생활 창조에 기여하고 도시의 활력과 매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도시형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이의 집적화를 추진
- 교육·학습과 엔터테인먼트, 건강·의료 등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위해 생활문화 서비스산업의 건실한 육성을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접목된 문화영상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2 대전경제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

1) 발전전략

- 국가혁신체제에 있어서 대전 지역의 혁신역량에 기초하여 수립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대전의 경쟁력 증진과 타 지자체와의 상호발전을 도모
 - 대전의 연구 등 혁신역량과 타 지역의 생산 역량을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는 Win-Win 계획을 수립
- 대전광역시와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과 상호연계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의 관련 계획을 연계하여 최대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향후 대전의 산업을 이끌어 갈 '4+4 산업' 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도모



< 그림 1- 1 > 새로운 지역활성화 전략

- 고부가가치의 생산적 사업 서비스업분야인 무역, 금융, 정보,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육성전략을, 음식, 숙박업 등 전통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에 역점
- 지역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산업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도모

2) 발전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등 새로운 기회가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집중
- 전략산업, 신성장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고용, 부가가치의 증진과 이를 통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선
-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산업입지 공간 확보를 위해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국토공간상의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광역교통체계의 개선과 이를 이용한 물류유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 첨단제조업, 첨단비즈니스 산업 및 벤처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R&D역량을 높이고, 여러 유형의 혁신기관들과 지원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증진
- 지역의 산업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대학의 인력양성 공급 기능을 제고하고, 직업 재훈련 기회의 확대 및 대학-산업체 맞춤형 인재 육성
- 지역내 각 권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북서부 지역과 발전소외 지역이라 할 동남부 지역간의 공간적 균형을 위한 입지 조정 및 기능 재배치를 추진
-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통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인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자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

3) 정책과제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마련

-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전개를 통해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출되는 각종 첨단·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생산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응용화·생산화 활동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 축적된 연구개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연구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②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으로 지역내총생산 수준 제고

- 기술혁신, 정보화, 국제화 등 21세기 산업구조의 대전환기에 있어서 대전지역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신기술과 정보의 제공, 첨단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유망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내총생산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동시에 실현

③ 도시공간 및 산업시설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산업의 효율성 제고

- 지금까지의 국가 및 지역단위로 추진된 각종 산업입지 정책이 도시공간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에 기초해서 전개되지 못한 점을 감안, 산업단지의 재배치 및 신규단지의 조성, 유통관련 시설의 공간적 재배분을 통해 산업활동과 시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도시와 조화를 이룬 산업정책을 추진

④ 제조업 지원기반으로서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 지금까지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토대로 한 시설·장치산업 중심의 산업전략에서 향후 기술·정보·서비스 등 산업의 소프트화 및 문화화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제조업 지원기반의 토대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강구

⑤ 산업 집적지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기업환경 조성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의 도시기능을 산업부문별로 전문화 영역으로 집적시키고, 도시형 선도산업 육성 등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벤처기업 창업촉진으로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산업별 전문화된 클러스터 군을 조성하여 생산업체와 지원기관 및 각종 관련 비즈니스산업이 조화·융합된 활력있는 집적지구를 조성

⑥ 물류유통체계 개선 및 근교농업 육성을 통한 산업간 발전 격차 해소

- 물류유통체계의 개선,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 재래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재개발 혹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강구
- 대도시 근교농업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고부가가치의 작목별 특화단지 조성, 웰빙형 체험농장,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고소득 농가 육성

3. 목표연도의 경제관련 발전지표

1) 인구지표

- 대전의 인구는 서남부생활권 개발, 산업 육성 등 향후 도시권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
- 2009년 현재 148만명에서 2015년 151만명, 2020년에는 152만명에 이를 것이 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표주박 형태의 인구구조가 형성될 것임.

< 표 1-1 > 인구지표

(단위 : 천명)

년도	2009	2015	2020
총인구	1,484	1,510	1,520

2) 경제지표

(1) 지역내총생산

- 2008년 현재 지역내총생산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32,181억원이며, 2015년에는 300,069억원, 2020년에는 351,096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됨.(장래 물가상승분이 가변적이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8년의 물가상승분을 향후에도 고정하고 추정함)
- 이에 따라 1인당 생산수준도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8년 15,678천원에서 2015년

19,860천원, 2020년 23,096천원으로 1.5배 수준 증가가 예상됨.

- 대전광역시 인구는 2008년 현재 전국의 2.98%를 차지하는 반면, 지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낮은 수준이며, 2015년과 2020년까지 지역내총생산 전국대비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표 1-2 > 지역내총생산 발전지표

구분	단위	2008	2015	2020
지역내총생산	억원	232,181	300,069	351,096
전국대비 구성비	%	2.3	2.3	2.3
1인당 생산수준	천원	15,678	19,860	23,096

(2)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구조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액은 2008년 현재 농림어업이 435억원, 광공업 34,018억원,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이 178,784억원으로, 농림어업이 0.2%, 광공업이 16.0%,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이 83.8%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서비스업 생산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표 1-3 > 산업구조 발전지표

(단위 : 억원, %)

구분	총액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서비스업	
		액	구성비	액	구성비	액	구성비
2008	213,238	435	0.2	34,018	16.0	178,784	83.8
2015	274,741	465	0.2	49,454	18.0	224,822	81.8
2020	321,468	505	0.2	64,294	20.0	256,669	79.8

※ 지역내총생산액은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금액임.

① 농림업

- 대도시 근교농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통한 도심과 농업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현대화 명품특작 생산 증대,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 그린 투어리즘의 확대사업 등을 전개함.
 - 이에 따라 농림업은 2008년 현재 지역내총생산의 0.2% 비중에서 2015년 이후에도 생산액은 증가하지만 제조업의 생산액의 더 빠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내총생산의 0.2%를 유지하는 발전지표를 설정함.

② 제조업

- 제조업부문의 확대를 위하여 대덕R&D특구의 육성, 국내의 투자자금 및 기업의 유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 취약한 제조업생산기반 확충사업을 계획·수행하여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액을 높여 나갈 것임.
 - 이에 따라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향후 2015년에 18.0%, 2020년에는 20.0%의 비중으로 높아나가는 발전지표를 설정함.

③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은 광공업의 생산비중 확대와 함께 2015년에 81.8%, 2020년에는 79.8% 수준으로 비중을 낮추도록 함.
- 아울러, 지식기반경제가 본격화 되면서 대전의 산업구조는 벤처기업 등의 활성화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임.
 - 지식기반 서비스부문은 제조업 부문과도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제조업부문의 생산기반 확충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2008년 현재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전사업체의 9.5%,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산업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나, 계획목표년도인 2015년에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각각 전산업의 10.6%, 27.2%, 2020년에는 각각 11.4%, 28.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표 1 - 4 > 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지표

(단위 : 개, 명, %)

구 분	2008			2015	2020
	전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사업체수	92,548	8,748	9.5	10.6	11.4
종사자수	450,857	106,277	23.6	27.2	28.3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편의상 사업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대상으로 함.

(3)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유소년 인구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세 확장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덕R&D특구 및 전략산업 육성사업, 산업단지 확충에 의한 국내의 투자자금 및 기업의 유치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2009년 현재 3.6%에서 2015년 3.3%, 2020년에는 3.0%로 낮출 계획지표를 설정함.

< 표 1 - 5 > 경제활동인구 발전지표

(단위 : 천명, %)

구분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2009	1,219	724	698	26	3.6
2015	1,341	741	717	24	3.3
2020	1,435	747	725	22	3.0

(4)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신규산업단지의 조성 등 제조업분야 생산기반의 확충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꾸준한 유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육성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전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2008년 92,548개와 450,857명에서 2020년까지 각각 20.7%, 18.8% 증가한 111,691개 사업체에서 535,046명이 종사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6 > 사업체 및 종사자 발전지표

(단위 : 개, 명)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8	2015	2020	2008	2015	2020
농림어업	7	13	15	316	357	425
광공업 및 SOC	8,987	9,541	9,895	72,165	92,464	109,300
서비스업	83,554	94,732	101,781	378,376	399,678	425,321
총 계	92,548	104,286	111,691	450,857	492,499	535,046

(5) 수출입 거래량

- 대전의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내수 및 수출역량이 우수하여, 환율 하락 및 유가상승 등의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전통산업단지의 혁신과 대덕테크노밸리의 육성에 의해 해외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증가하고,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케팅 분야에서 국제통상 및 물류·유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으로 수출 등 대외여건은 지속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수출은 2009년 2,851백만불에서 2016년에는 불변가격으로 4,742백만불, 2020년에는 6,108백만불로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순수출도 최근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015년 841백만불, 2020년 1,307백만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목표를 설정함.

< 표 1 - 7 > 수출·수입 전망

(단위 : 만불/년)

구 분	2009년	2015년	2020년
수 출	285,089	474,211	610,808
수 입	233,039	390,120	480,063
순 수 출	52,050	84,091	130,744

3) 기타지표

(1) 교통지표

- 국토의 중심권에 위치한 대전은 인근의 세종시 건설 및 중부권의 물류·유통의 거점도시, 국토 중심의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개발계획에 따라 광역교통수요의 증가 지역간 및 도시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연간 철도승차 이용객은 2008년 9,219천명에서 2015년 9,405천명, 2020년 10,106천명으로 증가가 예상됨.
- 또한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주5일제 근무제의 정착으로 여가 및 레저활동 중심의 문화생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임. 2008년 자동차 보유대수는 539천대 수준에서 2015년 723천대, 2020년 834천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8 > 교통 전망

구 분	단위	2008년	2015년	2020년
자동차등록대수	천대	539	723	834
철도승차이용객(연간)	천명	9,219	9,405	10,106

(2) 생활환경 지표

① 주택보급

- 함께 더불어 잘사는 도시의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향후에는 삶의 기본적 충족 요건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2020년까지 주택총수는 449만호로 계획하였으며,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4.1%에서 2020년 119.9%를 달성할 것임.

< 표 1 - 9 > 주택보급 전망

구 분	단위	2008년	2015년	2020년
일반세대수	천세대	395	426	449
주 택 수	천호	411	488	538
주택보급률	%	104.1	114.7	119.9

② 상수도

- 쾌적한 삶의 환경을 보전하여 녹색환경도시를 건설하고,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대청호 상류지역 오염원 방지 및 대청호 녹조 예방시설을 확충, 3대 하천 수질관리대책 등 21세기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임에 따라 양질의 물을 확대 확보할 것이며, 상수도 보급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
- 이에 따라 인구증가에 의한 급수의 인구 증가에도 상수도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99.4% 수준에서 2015년부터는 100.0% 달성을 계획하고 있어, 대전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것임.

< 표 1 - 10 > 상수도 전망

구 분	단위	2008년	2015년	2020년
급수인구	천명	1,486	1,510	1,520
보 급 률	%	99.4	100.0	100.0

□ 경제 및 관련 발전지표 총괄

	구 분	단위	2004	2011	2016
인구	총 인 구	천명	1,463*	1,824	1,988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총생산	억원	185,498	350,253	570,369
	전국대비 구성비	%	2.4	3.3	4.0
	1인당 생산수준	천원	12,784	19,202	28,691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	총 액	억원	167,988	317,209	516,559
	농림어업		639	1,586	2,583
	광 공 업		32,020	69,786	129,140
	SOC및서비스업		135,339	245,837	384,836
산업구조	농림어업	%	0.4	0.5	0.5
	광 공 업	%	19.1	22.0	25.0
	SOC및서비스업	%	80.6	77.5	74.5
지식기반 서비스업	사업체수	%	4.0	6.0	8.0
	종사자수		14.3	17.0	20.0
노동 시장	15세 이상인구	천명	1,154*	1,561	1,720
	경제활동인구		676*	880	969
	취업자		646*	851	942
	실업자	%	30*	29	26
	실업률	%	4.4*	3.3	2.7
사업체수	전산업	개	90,402	128,852	134,103
	농림업		9	18	18
	광공업및SOC		8,869	16,630	16,911
	서비스업		81,524	112,204	117,174
종사자수	전산업	명	402,530	554,225	578,725
	농림업		208	260	260
	광공업및SOC		68,597	93,324	95,237
	서비스업		333,725	460,671	483,228
수출 수입	순수출	만불/년	-15,368	17,446	105,622
	수 출		183,776	524,704	1,085,480
	수 입		199,144	504,258	979,858
교통	자동차등록대수	천대	492	527	616
	철도승차이용객	천명/년	7,649	9,310	9,934
주택	보통가구수	천세대	384	416	444
	주택수	천호	382	437	523
	주택보급률	%	99.6	109.2	117.7
상수도	급수인구	천명	1,427	1,791	1,968
	보급률	%	98.4	98.8	99.2

* : 2005년도 수치임, ** : 지역내총생산액은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금액임

4. 연도별 목표사업

1 세계적 수준의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

부 문	2011년 목표사업	2016년 목표사업
기술상업화 촉진 및 첨단벤처기업 육성	·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기술평가활동의 제도화 · 선도허브기업의 유치 · 기업입주용지 확충 · 창업보육시설의 내실화 · 기술분야별 전문클러스터 육성과 전국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업군 육성 · 첨단기술마트의 활성화 · 벤처창업촉진 및 첨단기업의 지원·육성 · 스타기업 육성 · 첨단벤처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특구 고유사업	· 첨단기술테스트베드사업 · 특구 I-City 시범사업 · 허브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	· 특구연구개발사업 · 보육-자금 일체형 대덕특구펀드
글로벌 비즈니스환경 조성	· 국제화 전담기구 설치 및 해외협력 거점 확보 · 과학영재학교의 지정 및 육성 · 특구의 국제홍보 및 해외교류 프로그램 확대	· 외국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확보와 인력 및 세계 지원 · 국제적 수준의 과학문화 행사 개최 및 과학문화 인프라 확충 · 환경친화적 첨단 교통 시스템 구축 · WTA 사업 확충을 통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크 공고화

2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

부 문	2011년 목표사업	2016년 목표사업
4대 전략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이동체통신생산기술연구센터 정보통신사업화지원센터 IT 집적화 단지 대덕밸리소프트타운 운영 대덕 Wireless Valley 고도화를 위한 고주파부품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바이오생물산업단지집적화 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허지슨 압연구센터 암 R&D 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메카트로닉스집적화센터 로봇빌리지 건립 RT 기반 첨단융합기술 상용화센터 정밀화학지원센터 정밀화학 Pilot Plant 설비구축 나노종합팩터 나노기술산업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의료복합단지건설 바이오융합산업지원센터 지능로봇 국제화센터 소재평가분석센터 나노산업단지 전략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과 상업화지원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및 서비스개발 항공우주 글로벌 마켓 공동진출사업 국방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원자력 기술 Science Park 조성사업 	

3 제조업 혁신환경 조성

부 문	2011년 목표사업	2016년 목표사업
제조업 생산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동록공장 협업화단지 조성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첨단비즈니스파크 조성 산업단지외곽 일반공업지역 정비 아파트형공장 건립 대전1·2산업단지 지원시설 확충 산업단지 도로정비 및 주차시설 개선 신동지구산업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둔곡지구산업단지 조성 기성평촌지구산업단지 조성 하소지구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중소기업 발굴 경영자의 기술개발 마인드 고취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장기비전 수립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 강화 지역기술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 지식정보 및 전자거래 포털 구축 U-시티(유비쿼터스 시티)구축 스타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확충 동업종간 기술융합화사업 전개 및 공동기술개발 이업종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기술교류 활성화 성장단계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기술가치보급제도 도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지역협력 연구센터 운영 강화 기업협업지원센터(가칭) 설립 U-대전 교통·물류·유통체계 구축 e-비즈니스 정책협의회(가칭) 운영 선도허브기업의 유치
기업 유치 및 고용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유치시스템 고도화 대전지역 연고기업의 외국기업 진출을 기회로 활용 공공기관 유치 및 정착 지원 전략산업 및 산업단지 도약전략 구축 노·사·정 안정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기업의 R&D센터 및 분사 유치 외국자본의 유치노력 강화 국내 대기업들의 지역내 사업장 건설 유치 고용촉진훈련 취업박람회 개최 경쟁력 높은 서비스산업의 발굴 및 집중 육성 인적자원개발 친화적 도시환경건설 추진
충청권역 혁신네트 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부권 산업정보망 공동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부권기술혁신센터 공동 설립
산업지원 금융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중소기업체 전문신용평가회사 설립 대전금융정보센터 설립 	

4 중부권 중추 서비스기능 강화

부 문	2011년 목표사업	2016년 목표사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대전비즈니스서비스센터 설립	·대전e비즈니스혁신센터 설치
에듀테인먼트 인프라 구축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Science-Education 소프트 인프라 구축 ·컨벤션 서비스 제공업체의 육성 ·컨벤션 관련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세계적 수준의 컨벤션 상품 유치	·첨단에듀테인먼트 체험과 비즈니스 공간 구축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영상정보진흥원 설립을 통한 영상산업 수요 창출
웰빙산업기반 구축	·웰빙을 활용한 도시이미지 제고 및 삶의 질 제고	·웰빙의 산업화

5 물류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부 문	2011년 목표사업	2016년 목표사업
국제통상 및 수출역량 강화	·대전종합무역센터 건립 ·기업의 수출마인드 제고 ·수출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기술상용화 시제품 제작 지원 ·대륙별 수출지원체제 구축 ·중앙정부, 수출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온라인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대전상품 해외 상설전시관 운영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활동 지원
물류유통기반 확충	·화물운송체제 개선 ·제3자 물류업체의 육성 ·남대전 종합유통단지 개발	·세계적인 물류클러스터 구축 ·물류 전문인력 양성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사업 추진 ·법인화를 통한 상점가조직의 강화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 추진
권역별 상권활력 증진	·광역형 시장의 활성화	·지구형 시장의 활성화 ·근린형 시장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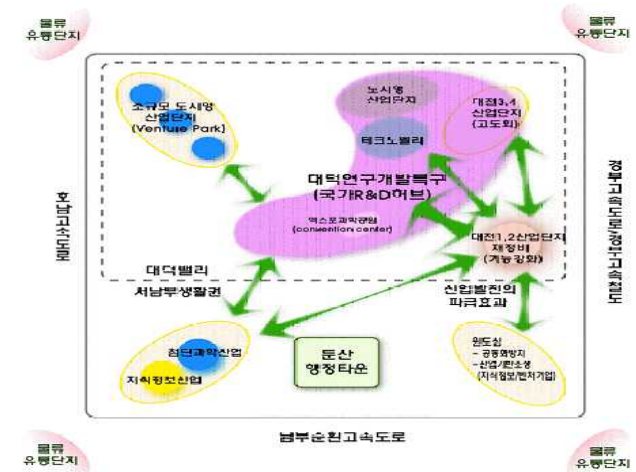
6 고부가가치 대도시 근교농업 육성

부 문	2011년 목표사업	2016년 목표사업
명품특작 생산증대	·절화류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역농특산물명품홍보관 설치 ·특화작물육성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유기농법가족농단지 조성	
그린투어리즘 사업	·유성배 테마로드 조성 ·그린투어민박마을 조성	·그린투어리즘사업 추진 ·산내포도 축제 ·친환경영농시범단지 조성
생산기반정비/현대화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자동화시스템 도입 ·농업정보시스템(AIS) 구축	·농업생산기반 정비
첨단농업 기술개발	·과학영농교육센터 설립 ·첨단벤처기술농단지 조성	·특작기술센터 설립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농산물 직거래센터 설립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	·농산물규격출하 지원 ·지역농산물공동계산제 구축
수출증진	·농산물수출프로그램개발 구축	·국제식료품화훼박람회 참가
축산업 증진		·한우전업경영체 육성

5. 대전경제발전을 이끌어갈 핵심플랜

1) 세계적 수준의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

기술사업화 촉진 및 첨단 벤처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화 촉진, 전문기업군 육성 첨단벤처기업 및 선도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고도화/특구 고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BT, NT 등 기술분야별 전문클러스터 육성 통합적 특구연구개발사업 추진 첨단기술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기업 사업환경 조성 과학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 특구 국제기술혁신포럼 운영



2) 전략산업 및 미래신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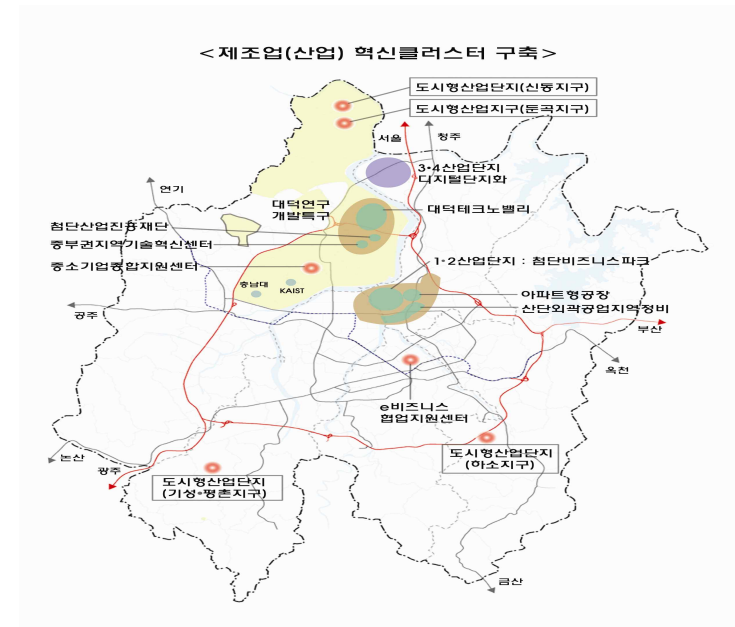
전략산업과 미래신산업 연계 육성 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 분야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분야별 사업화지원센터의 역량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활용
미래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공동체 운영 항공우주분야 국제화 추진 / 글로벌 마케팅 지원 국방산업 기술지원 및 사업지원체계 구축 원자력 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산업기반 구축

IT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wireless Valley 구현 • IT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 IT 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BT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테크노폴리스 구현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 • 암전문 연구개발 허브 육성
메카트로닉스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지능로봇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사업 추진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지원 기술기반 인프라 구축 • 국가허브 나노산업 클러스터 육성



3) 제조업 생산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입지 환경 개선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 첨단 비즈니스 파크 조성 / 아파트형 공장 확충 •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 산업단지화 • 대전 1,2산업단지의 리모델링 / 정부지원 산업시설 집중화
도시형 산업단지 신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단지 적정 수요예측 및 입지 결정 • 기존 산업단지와의 산단간 기능배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관리주체 일원화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기존 제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제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 확대 및 산학연 협력 증진 • 신산업-기존 제조업 협력생산 네트워크 구축 • 충청권 기존 제조업체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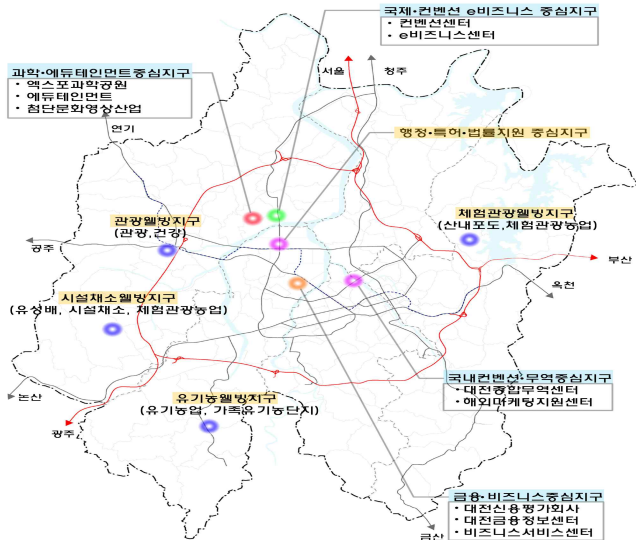
4) 중부권 중추 서비스기능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 중부권 중추 기능 및 국제화 ● e-비즈니스 육성 / 전자무역 인프라 확충
에듀테인먼트 인프라 구축 / 첨단문화사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테인먼트 인프라 구축 / 사이언스-에듀케이션 소프트인프라 구축 ● CT기반 활용, 문화 영상산업 육성 ● 컨벤션산업 육성 / 과학문화 관광상품, 웰빙 관광상품 연계
웰빙산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초대전 브랜드 이미지 연계, 웰빙 도시, 웰빙 소사이어티 구축 ● 웰빙 관련 기술개발, 산업화 추진 ● 웰빙 마케팅 도입, 친환경, 친건강 콘텐츠 상품화, 농업 어메니티 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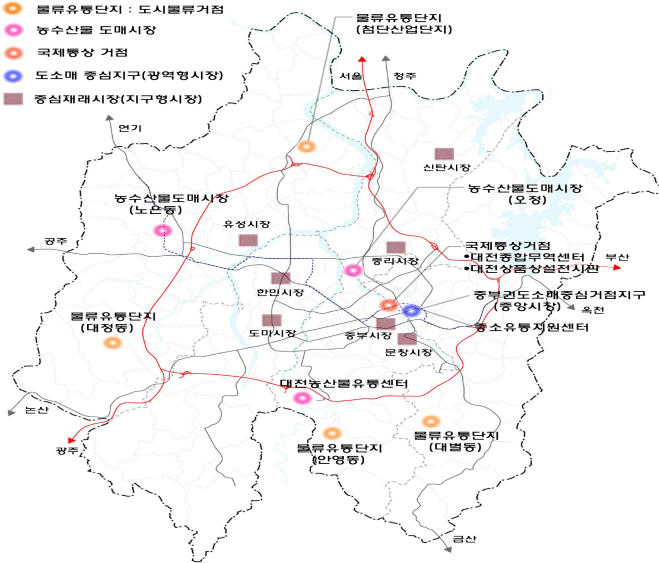
5) 국제통상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제통상 및 수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종합무역센터 건립 / 무역 인프라 구축 ● 해외 마케팅 및 국제통상 활동 지원 ●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물류유통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물류유통 환경개선 및 기반 확충 ● 신규 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단지간 기능 연계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 권역별 상권 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 리모델링 / 다양한 시장 활성화 소프트 사업 추진 ● 권역별(광역형-지구형-근린형) 상권 활성화 추진

< 지식기반서비스·웰빙산업 육성 >



< 통상 및 물류 거점도시 실현 >



제3장 대전경제 현황 및 혁신역량 분석

1. 대내외 여건 분석

1)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세계 경제는 2000년 이후 급속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지식기반 경제 체제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

- 지식기반경제 체제의 확산과 세계화는 병행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체제의 수렴화 경향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 체제는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기술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며, 세계적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경제구조가 확산되는 특징을 보임.
- 전 세계적 수준에서 세계화 현상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정보·기술·자본·상품·서비스·인적교류의 증대로 상호 연결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나타냄.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증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시장개방, R&D의 글로벌화, 인력이동의 증가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쟁의 심화 현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중급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선진개도국에게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화 진전의 이면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 심화, 일국 내에서의 빈부 양극화 등 신기술 및 지식에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국가간, 계층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경제적 지위 약화와 신흥 잠재강국(BRICs)의 등장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가속화

- 미국 경제의 지위가 약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과 맞물려 지역공동체간 무역확대 등 지역블록경제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잠재강국 (BRICs)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향후 거대 인구국인 중국과 인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경제 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 신흥 잠재강국(BRICs)의 부상은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등 신흥개도국에 의해 기존 경쟁우위를 위협받을 수 있음.

2)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글로벌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글로벌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는 글로벌화, 고령화, 산업간 융합, 천연자원 및 환경 문제 부각,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글로벌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단계 아웃소싱의 보편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의 확장,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및 발전 등을 맥락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됨.
- 디지털화는 해외의 생산기반을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개도국의 저임금 우위와 점진적 생산 효율성 증대로 인해 생산기능의 범용화와 생산단계 아웃소싱이 지속 확대할 전망이다.
- 수요패턴의 다양화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간의 융합 필요성이 높아지고 고부가

가치 서비스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생산기능의 개도국 이전현상에 따라 생산 이외의 가치사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성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임.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바이오, 전자의료기기 등 실버산업군의 발전이 예상되며, 환경규제의 심화에 따라 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도 예상할 수 있음.

3) 기술혁신의 패턴 변화

□ 과거의 수직통합적, 폐쇄적 기술혁신에서 수평적, 개방형 기술혁신 패턴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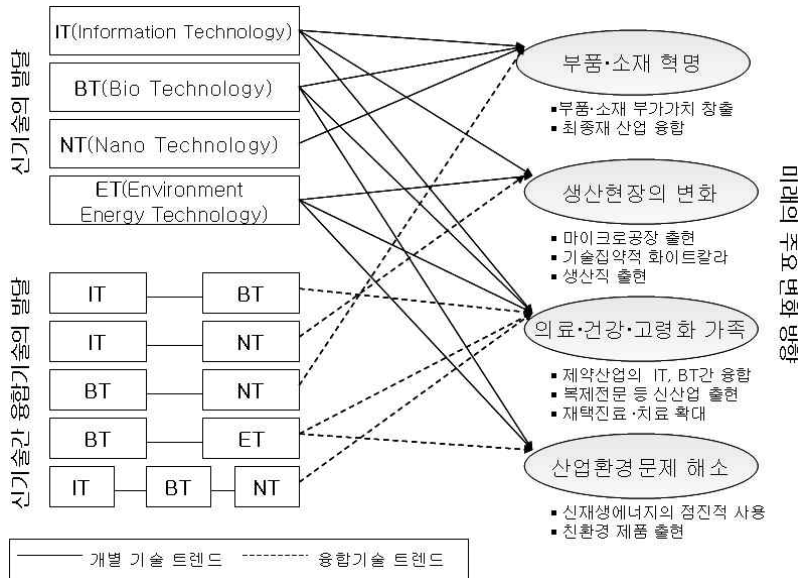
- 기술혁신이 과거 공급지향에서 생산자와 사용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사용자와 공급자 (User-Supplier)간의 협력 증대 중요성 부각
- 전문 기술요소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하고 전문기업간 연계에 의한 신기술 출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기술기반 창업기업, 전문기업간 수평통합 중요성이 증대
- 지식 하부구조의 특성에 있어서도 과거의 공식적 R&D 기구에서 중앙집중형으로 진행되던 체제에서 지역 단위별 분산형 R&D, 대학연구의 중요성 증대, 단위 프로그램별 R&D 진행 등 분산형, 외부 R&D원천의 중요성 증대
- 공공부문의 역할 또한 과거 통제형, 관리형 개입에서 개방성이 중요해 짐에 따라 조정형, 신뢰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형 경영체제로 전환

< 표 1 - 11 > 기술혁신 패턴 비교

	중앙집중형 체제	분권형 네트워크 체제
기업간 관계	시장 혹은 위계조직 중심	네트워크경제, 사용자-공급자 연계, 협력과 신뢰기반
지식하부구조	공식적 R&D 조직, 중앙 R&D 기관, 국방의 역할 중요	대학연구, 외부원천중시, 지방분산권 R&D 확산
공공부문과 커뮤니티	중앙수준 강조, 규제, 위계관계	지역수준 강조, Private-Public 파트너십, 협력관계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체제	신기업창업 희소, 신지식에의 접근 어려움, 수직통합기업의 통합능력 중요	기술기반 신기업창업, 기업가정신, 전문기업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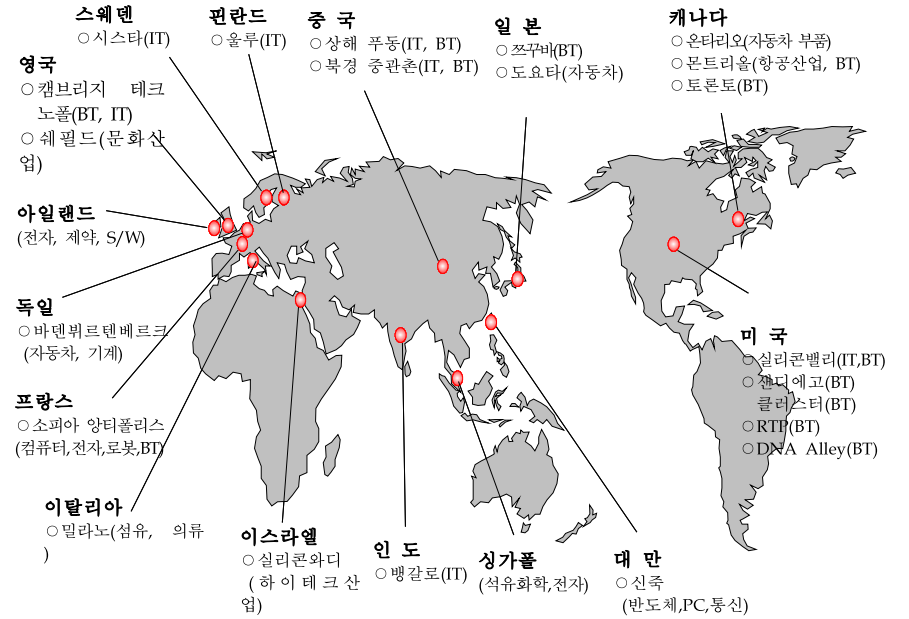
□ 다학제적 연구에 의한 신성장 분야의 창출 : 메가트렌드

- IT, NT, BT, ET 등 미래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융합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NT, BT, IT 및 소재기술, 에너지 기술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군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산업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초경량, 고강도 소재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NT 기술과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단일칩 다기능 첨단부품의 개발, BT 기술과 NT 기술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의학 소재 및 생분해성 소재 개발, 기능성 멤브레인 기술의 실용화 등을 통해 소재 및 부품의 획기적인 기능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부품 및 소재의 획기적인 기능개선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지능형 소재 발달로 인한 지능형 로봇 산업 등 새로운 산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IT, NT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한 초정밀 가공의 필요성과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첨단분야에서의 마이크로공장, 무공해 첨단형 공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은 선진국에서의 고급 엔지니어층을 출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 - 2 > 기술융합에 따른 미래 산업 변화

자료 : 산업자원부·전국경제인연합회·AT커니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 그림 1 - 3 > 세계 각국의 주요 혁신클러스터 육성 현황

3) 혁신클러스터와 동아시아 지역경제블록의 부상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해외 직접투자의 가속화로 인해 경제활동의 중심이 국가단위에서 점차 광역 집적지역 단위로 이동
- 경쟁의 단위가 과거 국가였던 것에서 점차 각국의 핵심 집적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

□ 글로벌화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해외 직접투자가 선진국 내부로부터 개도국 중심으로 지속 이전될 것이며, 그 중심에 동아시아 지역경제블록과 신흥잠재강국(BRICs)의 부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임.

- 동아시아내 광역집적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임. 특히 중국 내 주요 광역지역이 등장하고 이 지역을 주축으로 아시아국과의 연계관계의 밀접화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내 교역량 증대 등이 예상되고 있음.
- 아시아 지역과 BRICs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요에 따른 개도국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4) 대전경제환경의 변화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육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 탈추격형(Post Catch-up) 혁신체제의 수범사례 창출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육성을 계기로, 과거 추격형 발전패턴을 벗어나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원천기술력의 확충을 통해 탈추격형 혁신체제의 수범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패턴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기술기반기업 중심의 첨단형 산업구조로의 이전 가속화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육성을 계기로, 첨단벤처기업군 육성, 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 등을 통해 기술기반기업이 주축이 되는 첨단형 산업구조로의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군의 4+4 발전전략에 따라 혁신형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 집적지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접지로의 이전에 따른 수요창출 기회 확대

- 향후 본격화 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입주에 따라 다양한 수요창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입주민의 편익을 위한 교육기능, 문화예술기능, 정주 및 사무 인프라 관련 기능, 행정서비스 관련 기능 등에서 수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가능함
- 이에 따라 텔레매틱스, 유비쿼터스 시티, 인텔리전트빌딩, SW 콘텐츠 등 첨단전 정보산업과 연관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동아시아 연구개발 허브로서의 신산업군 창출과 동아시아 시장 확대에의 대응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주 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 개발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됨.
- 동아시아 지역경제 블록 내에서의 분업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7특히,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지식 및 기술 시장의 선점 중요성 강조
- 동아시아 경제블록 내에서 중국, 인도 등의 급속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하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서비스 시장에서의 선점이 중요

2. 산업구조 분석

1) 산업구조 변화

- 1980년대 개인 컴퓨터의 범용화,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과 2000년대를 전후한 정보통신혁명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산업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신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자본에 영향을 끼치는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졌던 지식이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연구개발은 경제 성장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켰음. 이렇듯 IT 산업의 발전에 의해 경제구조는 대량생산체제의 포드주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였으며,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음
- 최근 OECD 주요 국가와 국내 산업구조변화를 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은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였음.
 - 산업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보면,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은 증가하였음.
 -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고용구조의 변화로 이어져,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음.

- 특히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문인력의 고용비중은 증가하였음.

2) 산업구조 특성

(1) 생산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및 입지계수

① 생산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 농림어업은 충남·북 인근지역의 도시근교농업 발달로 지역내 생산 비중은 0.2%, 취업자 비중은 1.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대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여타 6대도시와 비교하면, 생산 비중은 낮지만, 취업자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대전 농림업분야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대덕백리 중심의 첨단벤처기업 집적으로 지역내 생산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내 생산 및 취업자 구성비 모두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6대도시와 비교하면, 지역내총생산 및 취업자 구성비가 모두 낮은 수준이며, 생산비중보다 취업자수의 비중이 더 낮은데, 이는 소규모인력이 투입되는 첨단벤처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서비스업의 지역내총생산 및 취업자 비중은 높은 매우 높은 편임. 특히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77.2%에 달하여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6대도시와 비교하여, 사업·개인·공공 및 기타 서비스업의 생산 및 사업체수 비중 높은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보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건설업은 전국 및 6대도시에 비하여 생산 및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표 1 - 12 > GRDP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및 입지계수

(단위 : %)

구 분	GRDP			취업자		
	대전	6대도시	전국	대전	6대도시	전국
농림어업	0.2 (0.1)	0.4 (0.1)	2.6	1.1 (0.2)	0.9 (0.1)	7.0
광업	0.0 (0.0)	0.0 (0.2)	0.2	0.0 (0.0)	0.0 (0.2)	0.1
제조업	15.9 (0.6)	17.3 (0.6)	27.7	12.2 (0.7)	15.6 (1.0)	16.3
건설업	6.0 (0.8)	5.7 (0.8)	7.1	8.6 (1.2)	7.8 (1.1)	7.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6 (1.2)	15.8 (1.3)	11.8	23.4 (1.0)	26.5 (1.1)	2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50.6 (1.5)	36.6 (1.1)	33.4	41.7 (1.2)	35.8 (1.1)	34.0
전기·운수·통신·금융·보험	13.7 (0.8)	24.2 (1.4)	17.3	12.9 (1.1)	13.5 (1.1)	11.7

주 : ()내는 입지계수이며, 6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을 말함.

② 입지계수 특성

- 입지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에 특화
 - 입지계수를 이용한 분석결과, 대전은 생산액 기준으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분야,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보험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6대도시와 비교하여 보면, 대전 역시 대도시 특성인 서비스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은 일반적이지만, 사업·개인·공공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특화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지역의 특정산업이 당해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역산업의 특화정도를 나타내며, 동 계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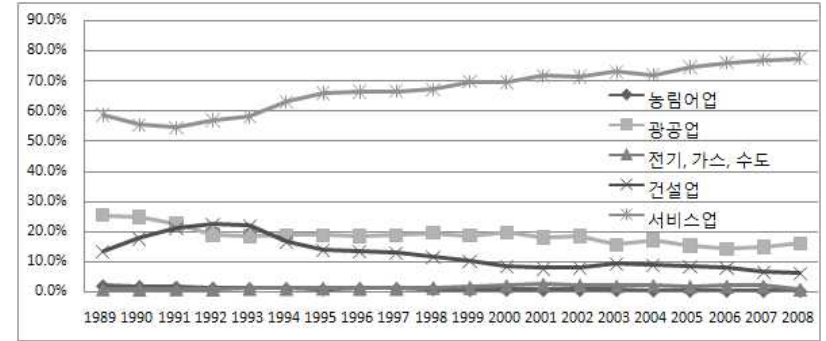
(2) 산업구조 변화 추이

- 1990년 이후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산업화 추세가 진전 됨.
 - 지역내총생산 기준 제조업 비중이 1989년 25.3%에서 2008년에는 15.9%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58.7%에서 77.1%로 상승하여 광역시 분리 이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되었음.
 - 결과적으로 제조업은 쇠퇴 또는 공동화한 반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경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표 1 - 13 >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1989	1993	1997	2001	2005	2008	전국
농림어업	1.9	1.0	1.0	0.6	0.3	0.2	2.6
광업	0.0	0.0	0.0	0.0	0.0	0.0	0.2
제조업	25.3	18.3	18.7	18.0	15.3	15.9	27.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8	1.0	1.0	2.4	1.7	0.7	1.3
건설업	13.3	21.7	12.8	7.6	8.3	6.0	7.1
도·소매업	12.6	9.9	12.1	11.1	10.6	10.8	9.4
운수업	4.2	4.3	4.1	4.0	3.7	3.4	4.6
숙박·음식점업	2.9	3.2	2.2	2.8	2.6	2.7	2.4
정보및·통신업	2.6	2.2	2.8	3.6	3.3	2.9	4.2
금융·보험업	4.5	4.1	5.5	5.9	6.9	6.7	7.1
부동산업·임대업	8.0	7.6	10.5	10.9	9.6	9.7	7.9
사업서비스업	5.9	8.1	8.6	9.1	10.5	11.7	5.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5.9	6.6	7.0	8.2	9.5	10.0	6.6
교육서비스업	7.2	6.8	7.5	8.0	9.3	10.0	6.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0	2.0	2.7	4.0	4.4	5.3	3.5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0.9	0.7	0.9	1.1	1.2	1.2	1.3
기타서비스업	2.0	2.4	2.5	2.7	2.6	2.7	2.3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그림 1 - 4 > 산업구조 변화 추이

(3) 산업별 성장기여율

-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함.
 - 1989~2008년 중 대전의 서비스업 성장기여율은 80.7%로(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2008년 현재 77.1%), 서비스업이 1990년대 이후 대전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은 같은 기간 중 서비스업 성장기여율은 63.0%로 대전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은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1989~2008년 중 성장기여율은 14.2%로 서비스업을 제외한 여타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전국의 27.5%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기타 대전지역 성장에 기여한 산업은 서비스업 부문 중 부동산·사업서비스업(2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10.8%) 순으로 나타남.

< 표 1 - 14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성장기여율 추이

(단위 : %)

구 분	89-96	97-00	01~04	05~08	89~08	전국
농림어업	0.4	-1.3	-0.2	-0.5	-0.1	1.2
광업	0.1	-0.1	0.0	-0.1	0.0	0.1
제조업	14.7	25.0	13.8	19.9	14.2	27.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2	7.2	0.7	-5.7	0.7	1.2
건설업	13.2	-17.2	13.0	-8.9	4.6	6.9
서비스업	70.3	86.4	72.6	95.2	80.7	63.0
도·소매, 음식·숙박업	15.1	11.2	11.2	15.4	13.2	11.2
운수, 통신업	7.0	10.3	4.0	1.9	6.2	9.1
금융, 보험업	5.7	10.9	9.7	5.7	7.1	7.4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21.0	24.1	19.1	29.2	22.8	14.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7.4	13.6	11.3	13.1	10.8	6.8
기타	14.1	16.4	17.4	29.9	20.6	14.3

주 : 성장기여율 = (각산업 부가가치 증가액/전산업 부가가치 증가액)×100

3) 산업별 특성

(1) 제조업 특성

①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특징

- 1989~2008년 중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전국의 5.8%보다 매우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1990년대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3.1%에서 2000년대 들어 초반기는 4.5%로 높아졌으나 2005년 이후 1.5%로 낮아졌음.
 - 또한 전국대비 대전의 제조업분야 지역내총생산 차지 비중은 1989년 1.9%에

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1.1%로 대폭 하락하였음.

- 결국, 대전의 제조업분야 지역내총생산의 전산업 대비 구성비 및 전국 대비 비중이 90년대 이후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 표 1 - 15 >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연평균성장률 및 전국대비 비중

(단위 : %)

구 분		1989~1997	2000~2004	2005~2008	1989~2008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대전	3.1	4.5
	전국	5.8	5.8	6.3	5.8
지역내총생산 전국대비 비중	1989	1997	2000	2004	2008
		1.9	1.6	1.5	1.4

② 제조업 종사자수 및 사업체수 추이 특징

- 대전의 1993~2008년 중 제조업체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종사자수가 감소하였음.
 - 종사자수 증가율은 1993~1997년 중 연평균 -1.1%에서 2000~2004년 중 -1.6%로 연평균 감소폭이 더 컸으나 2005~2008년의 감소폭은 -0.2%로 작아졌음.
 - 이러한 감소 추세는 5대도시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대전은 5대도시 감소폭보다 매우 작은 수준임.
- 대전의 제조업 사업체수는 연평균 증가율은 1993~2008년 중 -0.9%로 사업체수 역시 감소하였음.
 -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은 1990~1997년 중 4.0%에서 2000~2004년 중 0.1%, 2005~2008년 중 -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이러한 감소 추세는 5대도시와 전국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2005년 이후 증가율 감소폭은 대전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제조업 분야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증가율 폭이 작아짐은 물론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제조업분야 기술산업화에 의한 노동집약적 생산방

식보다는 자본장비를 증가, 또는 기업의 꾸준한 기술개발 등의 효과로 종사자 1인당 생산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1 - 16 > 제조업 종사자수 및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 분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			
	1993~1997	2000~2004	2005~2008	1993~2008	1993~1997	2000~2004	2005~2008	1993~2008
대전	-1.1	-1.6	-0.2	-0.9	4.0	0.1	-0.7	-0.9
5대도시	-8.1	-2.4	-6.3	-4.8	0.5	-0.1	-3.7	-4.8
전국	-3.9	0.6	-1.4	-1.1	1.9	1.2	-1.4	-1.1

주 : 5대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말함. 울산은 1997년부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함.

③ 제조업 산업중분류별 특징

- 2008년 중 부가가치 기준 9대 업종이 80% 이상 생산하고 있음.
 - 2008년중 부가가치 기준 7대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12.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1.4%), 기타 기계 및 장비(11.0%), 담배(9.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9.1%), 식료품(5.6%), 음료(4.6%), 전기장비(4.6%)로 이들 산업이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81.736%를 생산하고 있음.
- 주요 제조업의 중분류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4~2008년 중 구성비 변화 추이를 보면,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5.5%→11.4%)로 생산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7%→9.1%), 식료품 제조업(2.4%→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1.2%→13.2%) 부문의 생산비중이 상승추세에 있어, 이들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표 1 - 17 > 주요 제조업 구성비(2008)

(단위 : %)

지역총생산		종사자수		사업체수	
산업	구성비	산업	구성비	산업	구성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13.2	기타 기계 및 장비	15.1	기타 기계 및 장비	16.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3.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0.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1.9
기타 기계 및 장비	1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7.6	식료품	7.0
담배	9.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6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6.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6.3
식료품	5.6	식료품	5.5	전기장비	4.2
음료	4.6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1
전기장비	4.6	자동차 및 트레일러	4.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3.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9	전기장비	3.7	섬유제품; 의복제외	3.7

주 : GRDP 기준 산업은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며, 종사자수 및 사업체수 기준은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 표 1 - 18 > 주요 제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단위 : %)

산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1.2	13.7	12.1	13.7	1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4	19.1	18.0	18.9	1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5	7.1	6.8	8.5	1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8	14.5	15.3	11.6	11.0
담배 제조업	20.5	8.7	10.4	10.8	9.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7	5.8	7.6	7.9	9.1
식료품 제조업	2.4	3.0	3.4	4.5	5.6

(2) 서비스업 특성

① 서비스업 산업별 구성비 및 입지 특성

-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연구개발서비스가 포함된 사업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의 40.7%를 차지하고 있음.
 - GRDP 기준으로 보면 연구개발서비스가 포함된 사업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업의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13.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2.9%, 교육서비스 12.8%, 부동산·임대업 12.4% 등의 순임.
-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도·소매업(19.3%) 및 숙박·음식점업(12.6%)과 사업서비스업(14.4%), 교육서비스업(11.8%)이 전체 서비스업의 58.1%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도·소매업(29.7%)과 숙박·음식점업(20.5%)이 50.2%를 차지하여 전체 서비스업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음.

< 표 1 - 19 > 서비스업 구성비 및 입지계수(2008)

(단위 : %)

구 분	구성비			입지계수		
	GRDP	종사자	사업체	GRDP	종사자	사업체
도·소매업	13.9	19.3	29.7	1.2	1.0	1.0
운수업	4.4	6.7	12.5	0.7	1.0	1.1
숙박·음식점업	3.5	12.6	20.5	1.1	1.0	1.0
정보·통신업	3.7	2.8	0.8	0.7	0.9	1.0
금융·보험업	8.6	5.5	1.4	0.9	1.1	1.1
부동산·임대업	12.4	3.5	4.0	1.2	1.1	0.9
사업서비스업	15.0	14.4	3.5	2.2	1.5	1.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2.9	6.0	0.3	1.5	1.4	0.7
교육서비스업	12.8	11.8	6.0	1.5	1.2	1.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8	7.8	3.8	1.5	1.2	1.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5	2.1	3.8	0.9	0.9	1.1
기타서비스업	4.4	7.6	13.7	0.9	1.1	1.1

- 입지계수를 보면, 주로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분야의 특화도가 높음.
 -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는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분야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②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특성

- 서비스업의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추이를 보면, 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업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던 90년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1989년~2008년 기간 중 연평균 11.7%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다만, 지역내총생산 구성비가 3.7%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생산수준의 빠른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높은 성장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1989년~2008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산업분야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8.4%), 금융·보험업(8.3%),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8.2%), 사업서비스업(7.0) 등으로 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 20 >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대전			전국		
	1989 ~1997	2000 ~2008	1989 ~2008	1989 ~1997	2000 ~2008	1989 ~2008
도·소매업	12.2	3.7	6.2	8.4	2.8	5.1
운수업	4.8	3.2	3.6	9.0	4.6	5.3
숙박·음식점업	6.5	4.0	5.7	11.1	2.9	5.8
정보·통신업	15.3	7.1	11.7	15.7	7.2	11.6
금융·보험업	12.6	5.1	8.3	11.4	6.7	7.3
부동산·및임대업	9.3	2.9	5.7	9.8	2.6	5.5
사업서비스업	10.3	4.9	7.0	9.8	4.7	7.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7.0	3.8	5.6	5.5	3.1	4.0
교육서비스업	5.2	4.9	4.6	5.0	4.6	4.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1.8	6.2	8.4	6.1	5.0	5.7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0	6.4	8.2	14.0	7.2	10.8
기타서비스업	10.9	4.3	7.7	8.8	4.7	6.0
합계	9.1	4.4	6.3	8.6	4.3	5.8

③ 서비스업의 특징 :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

- 서비스업이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해 경제성장에 기여함.
 - 2000-2008년 중 노동생산성 증가(+37.9%)를 산업별로 분해해 보면, 서비스업(+50.4%)과 광공업(+11.7%) 부분이 경제성장에 기여함.
 - 반면, 농림어업(-55.3%), 건설업(-0.4)은 지역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를 기록하였음. 농림어업은 취업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취업자 비중 하락으로, 건설업 역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취업자 비중 하락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였음.

< 표 1 - 21 > 노동생산성 향상의 산업별 분해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8			취업자 1인당 GRDP성장기여도 (B-A)*100/A
	취업자 비중	취업자 1인당 GRDP	GRDP 구성(A)	취업자 비중	취업자 1인당 GRDP	GRDP 구성(B)	
농림어업	0.03	5,402	140	0.01	5,443	63	-55.3
광공업	0.14	32,079	4,377	0.12	41,486	4,888	11.7
건설업	0.10	18,971	1,835	0.08	21,548	1,827	-0.4
서비스업	0.74	21,407	15,861	0.78	30,416	23,861	50.4
전산업	1.00	22,213	22,213	1.00	30,638	30,638	37.9

3. 혁신역량 분석

1) 혁신자원 분석

① 지역의 연구자원 및 역량

□ 우수한 연구자원과 환경 및 높은 연구개발집약도

- 대전은 국가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 연구자원과 환경이 매우 우수함. 아래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2007년 기준 전국 연구개발비의 10.7%, 연구원 분포 7.3%(박사급 연구원의 10.2%),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15,836만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연구개발집약도가 가장 높음

< 표 > 대전의 연구자원 현황(2007)

연구개발비 (억원, ()는 전국비율)	연구원수 (명, ()는 전국비율)	여성연구원 수 (명, ()는 전국비율)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만원)
33,598(10.7)	21,216(7.3)	2,792(6.5)	15,836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200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대전은 타 지자체의 주요 과학기술활동 주체가 대학인 것과는 달리, 주요 과학기술활동 주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2007년 연구비 기준 대전의 연구개발 투자 분포는 출연연 56.3%, 대기업 14.8%, 대학 8.1%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 대전의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현황(2007)

투자비	국공립 연구소	출연 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
비중	1.2	56.3	8.1	14.8	7.2	1.4	7.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개발연구의 비중이 53.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응용연구 26.5%, 기초연구의 비중이 20.1%로 타지역에 비해 기초연구 비중보다 응용연구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대학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타지역과 달리 정부출연연의 응용연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에 기인함

②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 특허출원

- 연구개발성과의 하나인 국내특허출원의 경우 2007년 기준 대전은 전국대비 7.2%의 비중¹⁾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특허출원 비중 3위를 기록하고 있음. 대전의 대표 과학기술집적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특허출원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성과가 매우 우수함

< 표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관들의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

국내특허(누적)		해외특허(누적)		기술이전건수 (2008)	기술료(2008)
출원	등록	출원	등록		
55,154	30,737	20,492	6,544	974	95,723

자료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 www.ddi.or.kr

□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

- 또한 2007년 기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관들의 기술이전건수는 815건이며, 이 중 대덕특구내 기술이전이 129건, 대덕특구외 기술이전이 668건, 국외 기술이전이 1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덕특구 연구성과는 지역내 활용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기술이전을 통한 총 기술료 수입은 약 777억원²⁾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 및 해외 논문 발표

- 또 다른 연구개발성과지표 중 하나인 논문수를 대덕특구입주기관만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2007년 기준 국내논문 4,880건, SCI급 4,833건, 비SCI급 해외저널 689건 등으로 연구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 최근 13년간 대전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전체 정부출연연구기관 SCI 논문수인 45,097편 중 22,761편을 발표,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소재 대학들은 전체 국내 대학 SCI 논문수 305,687편 중 28,072편을 발표, 9% 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음.

□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중심으로 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

- 대전지역의 고등교육기관 현황은 전문대학 2개, 4년제 대학 11개, 대학원대학 2개 등이

1) 통계청 지역별 통계현황, 통계청 홈페이지 www.

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 www.ddi.or.kr

3) 한국학술진흥재단(2008), 한국연구자의 2007년도 SCI 인용지수 분석연구

며, 연구비 규모 기준 전국대비 7.4%로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높은 연구비 규모⁴⁾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공학분야 중심 대학이 대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NURI 사업은 전략산업 분야인 바이오산업, 차세대 이동통신, 메카트로닉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04년~'09년까지 5년간 약 14,0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참여인력 취업률이 78%에 육박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인력 배출에 성공적 성과를 도출하였음.

□ 국가대표 과학기술활동기반 구축

- 대전의 과학기술활동기반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입주기관 현황을 보면, 2008년 현재 출연기관 28개, 공공기관 7개, 국공립기관 14개, 기타비영리기관 24개, 교육기관 6개, 기업 980개 등 총 1,059개 기관이 입주⁵⁾해 있음
- 연구장비측면에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최고의 인프라를 갖추어 있어, 연구장비 구축DB를 통한 연구장비의 경우 5,833건으로 국내 전체 구축 DB의 23.6%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인 대형 공동연구장비시설에는 하나로(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K-STAR(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한빛프라즈마(프라즈마 물성 연구시설), 핵자기공명분광(MR 영상촬영장치) 등이 있음
- 창업보육센터는 총 23개소로 출연연 6개소, 대학 9개소, 대기업연구소 2개소 등 각 혁신주체별 보육시설과 대전테크노파크 산하 4개 지원센터내 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약 500여개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음
- 기타 R&D 기반으로는 대전테크노파크 내의 전략산업별 지원센터로서 고주파센터, 바

4) 한국학술진흥재단(2007),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
5) 대덕특구포털, www.ddi.or.kr (2008년 12월 기준)

이오센터, 로봇센터 등이 있어 연구개발장비 및 생산지원시설, 기타 기업경영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KAIST내의 나노종합팹이 국가단위에서의 나노기술의 종합적 연구개발지원과 공동장비활용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의 혁신활동

- 산업분야별 기업 연구개발비 비율을 살펴보면 특히 대전은 코크스, 석유,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비중이 47%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계장비, 가구 및 운수장비 부문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는 2008년 현재 98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008년말 현재 43개 기업이 거래소 상장, 22개의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였음. 특구내 기업은 기술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에서 파생된 연구소기업이 2009년말 기준 19개이며, 첨단기술기업이 84개에 달하고 있음. 전체 특구내 기업 중 53%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며, 37%가 이노비즈 기업으로 지정⁶⁾되었음.

2) 혁신시스템의 특징과 잠재력

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국내 최고의 기술보유 지역

- 첨단기술의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출원건수 기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상위에 있음. ※ 전국대비 특허출원비중 7.2% 차지 (2007년 기준)
- 주요 기술로서는 정보기술분야(국산전자교환기, CDMA), 생명과학분야(팩티브), 원자력분야(한국표준형원천 개발, 핵연료국산화), 항공우주분야(우리별 1,2,3호,

6)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007년 자체조사

무궁화 1,2,3,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우수한 IT, BT, NT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융합 추구
 - 대전은 4대전력산업으로 정보통신(IT), 바이오(BT), 매킨트론스(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6T 분야별 비중을 연구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IT 분야와 우주항공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전국에서 6T분야별로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주항공분야의 52.3%, IT 분야의 38.2%를 대전에서 수행하고 있어 동분야 연구개발의 핵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표 > 6T 분야별 지역내 비중 및 전국대비 대전비중

	BT	CT	ET	IT	NT	ST
대전내 비중	13%	4%	20%	36%	6%	23%
전국대비 대전비중	15.7%	7.8%	24.1%	38.2%	22.8%	52.3%

② 과학기술투자 지원의 문제점

- 대전은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수도권과 대전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비 비중을 축소함에 따라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비중이 완만히 축소되는데 비해, 대전의 비중 축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따른 역차별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표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수도권/지방 분포 추세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수도권	40.0%	39.7%	37.7%	37.7%
대전	33.9%	27.9%	28.2%	24.0%
소계	73.9%	67.6%	66.0%	61.7%
지방	21.8%	27.5%	26.8%	26.4%
해외/기타	4.3%	4.9%	7.4%	11.9%

③ 미흡한 사업화 성과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출연연 중심의 한 연구개발활동 특성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성과의 사업화율이 아직 미흡한 상황
- 특구내 대학 및 출연연도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통해 전략적 특허관리, 기술이전 지원 등 추진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15개 연구소기업(2009.6), 기술이전전수 및 기술료 수입 지속증가

< 표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추이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기술이전건수	1,024	1,076	1,580	2,073	3,477	3,212
기술료수입(억원)	391	551	687	820	1,044	1,288

자료 : 지경부, 2009

- 최근 대형기술이전 성공 사례 증가 등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08.3) : 촉각센서 기반 초소형 마우스 터치스크린 325억 기술료
 - 한국화학연구원('08.7) : 에이즈치료제 후보물질 길리어드(미) 이전
 - 한국기계연구원('07.6) : 매연여과장치 재생용 플라스마 버너기술 (주)템스에 이전 105억 기술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2~) : 해양용존 리튬추출기술

④ 연구생산성의 미흡

-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비중은 2.3%로 유럽(4.5%), 미국(8.2%)에 비하여 매우 낮음

< 표 > 공공연구부문 연구생산성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유 럽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연간기술료수입 [백만불][C]	8.0	73.7	81.7	1,600	336	1,936	90	245	335
연간연구비지출 [백만불][D]	2,387.5	3,178.6	5,566.1	36,662	4,081	40,743	4,264	5,348	9,612
연구생산성(%) [C/D]	0.3	2.3	1.5	4.8	8.2	4.8	2.1	4.5	3.5

자료 : 지경부, 2006

⑤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한 금융 및 경영 전문 서비스 미흡

- 기술집약기업에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정착된 벤처캐피탈 부재
- Financing, 법률, 회계, 경영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서비스 제공자 및 대외 교류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 부재

⑥ 지역내 산업의 가치연쇄 미성숙

- 2004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가전체로의 확산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국가혁신체제의

전략지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지역연구개발수요와의 연계고리 형성이 아직 미흡하고, 직접적 지역경제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업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자 (System Organizer)로서의 선도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기업 부재
- 지역내 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타지역 대기업과의 연계,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등 적극적 시장 확대 전략이 미흡

⑦ 대덕특구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R&D센터 유치 저조

- 대덕연구단지의 풍부한 교육·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첨단 외국기업이나 외국 R&D센터의 유치실적은 아직 저조한 상황임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해외R&D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IT와 BT 분야를 중심으로 8개 기관이 입주해 있음

< 표 > 대전의 해외 R&D 센터 현황

번호	연구기관	센터명	설립일	프로젝트명	비고
1	카벤디쉬	(캠브리지)카벤디쉬-KAIST 공동협력센터	04.11	카벤디쉬-KAIST 공동협력센터	KAIST
2	허친슨센터	프레드허친슨센터	05.02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소유치를 위한 종양마커의 개발	생명공학 연구원
3	프로메가	프로메가연구소	05.03	신기능성 진단시약 개발사업 / 생명공학단백질 효소개발사업	한남대
4	Texas Instrument	Texas Instrument	05.12	공동모바일미디어 플랫폼	KAIST
5	ISIS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	07.04	KIT-ISIS 바이오신약개발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6	Norsat	ETRI-Norsat 위성단말시스템 연구센터	08.03	위성단말시스템 연구센터	ETRI
7	뉴로스카이 뇌과학기술응용	뇌과학기술응용 공동R&D센터	08.11	뇌과학기술응용 공동R&D센터	KAIST
8	VTT	ETRI-VTT 공동연구센터	09.03	ETRI-VTT공동연구센터	ETRI

- 2009년 현재 외국인 과학자는 약 41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활용되고 있을 뿐 해외 연구주체와의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전략적, 조직적 노력이 미흡

제4장 대전의 도시발전 비전 및 관련계획 검토

1. 대전의 위상 변화

1) 국가적 차원

(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원하는 행정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적정 인구규모는 30~50만명 수준이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규모는 9부 2처 2청으로,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의 건설을 목표로하고 있음

추진 단계	주요 사업
준비단계(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제정(2005. 3) · 추진체계정비(2005. 3~12) ·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2005. 상반기) · 이전계획 수립(2005. 상반기)
계획단계(20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2005~6) · 사전환경성검토(2005~6) · 실시계획수립(2005~7) ·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2005~7) · 용지매입 착수(2005. 12) · 건설청 및 특별회계 설치(2006. 1)
건설단계(~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공사, 청사건축, 행정도시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단계(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주민입주 개시

- 대전은 현재에도 청단위의 대부분 국가행정기관(정부대전청사), 과학기술·연구

(대덕연구단지), 국방(계룡대) 등의 국가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시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교통의 중심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부권의 거점도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기간은 물론이고, 건설 이후에도 대전은 충청지역 최대의 도시로서 현재의 수도권과 영·호남권을 연결하는 국가 중추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2) 한국 최고의 연구개발 중심도시

-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의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있는 제2과학기술 입국을 선도하는 요람으로서 74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임.
- 또한 우리나라 R&D 인력 및 박사인력의 10%(박사 4,742명 포함 17,500여명의 첨단고급인력 집중)가 밀집되어 있으며, 세계 첨단연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R&D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전은 산·학·연이 공간적으로 근접되어 있어서 R&D 인적네트워크 활성화가 가능하며,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WTA)을 주도적으로 설립한 과학·연구·기술도시로서 정부공인 벤치가 집적되어 있음.

(3) 과학기술이 특화된 첨단산업도시

- 대전은 지난 30년간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30조원 이상이 집중투자된 지역으로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16,000여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을 가지고 있고, 특허출원율 증가율이 전국 최고이며, 첨단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임.
- 2004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련, 특구육성 및 관리계획 수립,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특구육성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30년간 축적된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

술을 활용,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한국의 신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 특히, ETRI를 중심으로 IT분야가 타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노 Fab 센터를 KAIST에 유치함으로써 6T분야 산업화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지능로봇산업화센터의 건설로 로봇기술(RT)의 산업화 지원이 가능해 지는 등 차세대 융합기술(Fusion Technology) 클러스터로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첨단산업 비즈니스 중심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4) 한반도 내륙 물류·유통거점도시

- 대전은 국토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부·호남권 철도와 고속철도가 분기되고, 경부·호남·대동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가 분기되는 교통망의 결절지로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2-3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춘 물류·유통산업의 허브도시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대전은 명실상부한 전국 물류·유통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현대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바, 현재의 GDP 대비 12.9%의 물류비용을 10% 이내로 감소시켜야 선진국 수준의 물류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음.
- 정부는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인천공항과 부산항만 육성·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바, 대전은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 광역적 차원

(1) 고속철도 중심역 도시

- 고속철도(KTX)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형성하게 되며, 통행시간 단축으로 지역간 교류가 크게 촉진되기 때문에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 도시와 기타 지역과는 발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임.
- 일본의 경우, 1964년 신간선 개통 이후 동경-나고야-오사카를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경제 및 산업활동이 크게 집중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기존의 고속도로 및 신설 고속철도가 서울-부산의 경부선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축을 따라 산업·경제의 집중화가 예상됨.
- 고속철도 정차역 지역은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주변지역과 중소도시가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결합되는 광역도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정차역 도시는 인구유출 등으로 정차역 도시로의 종속성이 증대되는 등 정차역 도시와 비정차역 도시간 발전의 격차가 증대됨.
-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병행하여 광케이블이 설치되고, 지역 LAN, 광역 VAN 네트워크 등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는 지식·기술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

(2) 중부권 광역생활권 중심도시

- 충청권은 현재의 수도권, 영호남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정보/교통 시스템의 개선으로 주민들의 공간적 활동영역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생활권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과 더불어 중부권을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청주, 천안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가 30~50만명이 되는 2030년경의 충청권 인구는 500~

530만명 규모로 예측되며, 이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 대전 - 청주 - 천안을 중심으로 320~350만명의 광역 도시권이 형성될 것임.

- 도시 위상 측면에서 대전은 광역 도시권을 주도하는 중심도시로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상업, 교통, 문화, 복지의 측면에서 인근 주변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3) 광역생활권 교육중심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충청권에 소재해 있는 지역 대학들에 대한 신입생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지역으로 대학이전 및 분교설치가 증가되어 충청권 지역대학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임.
-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11개의 4년제 대학, 6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충청남도에는 4년제 대학 19개소, 전문대 10개소, 충청북도에는 4년제 10개소, 전문대 7개소 등, 충청권역 내 4년제 대학은 35개소, 전문대 23개소가 입지해 있음.
-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에는 광역권의 교육중심도시로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학 협력사업에 협력해 나가면서 대학간 차별화, 전문화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함.**
- 대전이 광역권의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어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시 수도권 및 기타 권역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권으로 대학이전 및 분교설치가 가속화될 것임.

3) 도시적 차원

(1) 환경친화형 도시

- 미래도시는 공간 단위당 높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여 현재보다 많은 노폐물

을 배출함으로써 도시의 생태환경에 높은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자연환경이 새로운 회소가치로 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배분과 갈등이 발생할 것임.

- 자연환경이 삶의 질 확보에 중요한 회소가치가 되면, 고소득층은 각종 물리적,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 그들의 환경을 청정화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특권화할 것이고, 반면에 저소득층은 열악한 환경에 살게 되어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됨.
- 환경친화적 도시란 도시환경을 직접 개선하거나 개발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이외에도 도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하여 도시민 스스로 도시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여 도시를 자연친화적 공간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임.
- 대전시는 환경측면에서 시외곽 주변에 대청호를 비롯한 3대 하천과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 구봉산 등의 아름다운 산,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 및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써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의 개발을 시도하여 시민의 청정한 도시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생태도시로 개발되어야 함.

(2) 격조 높은 문화도시

- 21세기는 정보, 지식, 미학 등의 요소를 상품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문화산업은 탈근대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산업화하는 조건 즉, 소비적 정체성의 형성, 문화욕구의 증대, 언론 영상매체의 발달, 공연예술의 산업화, 초국가적 소비유통망의 형성 등의 조건을 새로운 산업으로 이끌어낸 결과임.
- 과거 제조업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고도화하고, 노동의 효율적 조직화를 통해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생산, 대량소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문화산업은 미학적, 지식적 요소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이를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생산과정으로 투입해 개성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나

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시는 역사성을 잃고 뿌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특색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통한 도시의 매력도 제고가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음.

(3) 인간중심의 교통도시

- 우리나라의 도시권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고밀도 개발, 높은 토지가격 및 가용토지의 부족,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 등으로 자동차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도시에 비해 심각한 교통문제를 안고 있음.
-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보는 인간생태(Human Ecology) 이론에 기초한 접근성이 과거의 이동성을 대체하는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접근성에 기초한 교통정책은 종래의 혼잡해소나 이동의 편의성 향상 등과 같은 직접적인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준의 저감과 같은 환경부하의 경감, 자연환경이나 전원지역의 보존, 통근시간이 단축되면서 자동차 의존도가 낮은 통행이 가능한 토지이용의 유도 등까지 포함하는 교통계획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
- 고속철도의 운행, 도시철도망의 확충, 승용차 보급의 확대 등으로 앞으로 도시근교 및 외곽지역 거주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통근 통행이 감소하고, 여가통행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 따라 통행패턴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 될 것임.
- 또한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간가치가 중요해져서 정시성 있는 고급 교통수단(예, KTX)이 선호될 것이며, 터미널 기능이 강화되어 도시시설 입지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주차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 운영제도의 시행이 필요하게 될 것임.

2 대전의 도시발전 비전

1) 광역권 도시발전 비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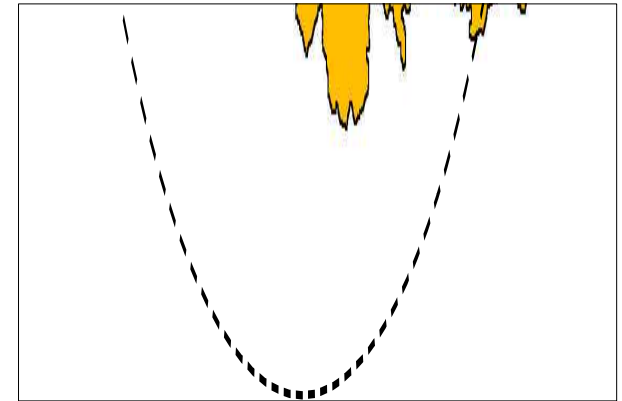
(1) 광역도시권의 범위

① 공간적 범위

- 광역도시권 변경지정(2000.10.6)에 따라 대전광역도시권의 공간적 지정범위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2시 2군 1출장소와 충청북도 2군 4면으로 함.

구 분	행정구역 면적(km ²)	개발제한구역 면적(km ²)	읍·면·동
대전광역시	539.79	316.93	5구(76동)
충남 공주시	940.63	11.87	8동 1읍 10면
논산시	615.51	3.72	2동 2읍 12면
연기군	361.47	41.48	1읍 7면
금산군	575.77	10.61	1읍 9면
충북 옥천군	537.10	29.70	1읍 8면
영동군	845.01	-	1읍 10면
청원군	171.98	26.90	3면
보은군	46.61	-	1면
총 계	4,633.87	441.21	5구(86동)7읍60면

주 : 계룡시는 논산시에 포함
 자료 : 대전통계연보·충북통계연보·충남통계연보.



< 그림 1 - 5 > 대전광역도시권 공간범위

② 내용적 범위

-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도시권 설정과 현황 및 특성분석, 목표와 전략수립, 공간구조구상, 부문별계획, 생활권별 정비, 개발제한구역 조정, 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
 - 부문별 계획은 광역토지이용, 녹지·경관·여가, 광역교통, 광역공급·이용시설, 방재, 환경보전 등 6개 부문으로 구성
 -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조정원칙 수립, 환경평가 검증, 우선해제집단취락 및 조정가능지역 설정, 조정가능지역 관리방안 등으로 구성

(2) 대전광역권의 미래상

- 자립경제기반을 갖춘 중부권 거점도시 권역
 - 제 4차 국토종합계획상 대전광역권은 신사업지대 조성지역인 환황해권과 광·문화거점지역인 중부내륙권의 배후 대도시권으로 설정되어 있음.
 - 대전광역권은 동북아 및 중국과의 국제교류를 위한 중추적인 위치에 있음

로 첨단과학기술 및 국제교류기반의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도시지역간의 균형발전된 권역
 - 국토의 중심부로서 국내 물류·유통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권역내 균형발전 도모를 통해 도시간 연계체계 구축 및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갖춘 권역
 -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관리와 계획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적정관리·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

2) 광역권 산업발전 비전

(1) 산업단지 현황

- 대전광역도시권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은 총 14개소에 면적은 14.7km²이며, 그 중 조성된 단지가 7.7km², 미조성은 7.0km²로서 조성율은 52.4%에 그치고 있음
 -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에는 8.6km²의 산업용지중 4.4km²가 조성되어 조성률은 51.2%이고, 충청북도는 1.3km²의 산업용지가 모두 조성되었으며, 충청남도는 4.8km²의 산업용지중 2.0km²가 조성되어 조성률은 41.7%임

(2) 지역별 산업발전 방향

① 대전광역시

-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입지한 대덕테크노밸리와 제 3, 4 산업단지, 엑스포

과학공원, 둔산행정타운을 연결하여 연구개발(R&D) 및 생산기능이 복합화된 첨단과학 및 지식정보의 산업벨트를 구축

-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시 외곽의 미래형 청정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과학산업의 도시기반시설을 완비
- 벤처기업 창업의 수요에 대처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대덕연구단지내 및 시 외곽의 미개발지역(개발제한구역 포함)을 활용한 중소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식정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입지기반을 강화
 - 국제 컨벤션타운 및 지식정보 복합단지(지식산업집적화단지) 조성
 - 지역의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여 영상문화단지, 멀티미디어단지(군사, 의료) 등의 전자·정보통신 특화단지 조성
- 둔산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신규개발지에는 지식정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토록 하며, 물류유통단지는 도시외곽을 순환하는 경부 및 호남, 남부순환고속도로 주변에 입지시킴으로써 도심의 물류유통 지원기능을 담당

② 충청남·북도

- 대전광역시의 주변도시는 대전시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고, 대전시와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전 도시기능을 유입토록 유도
-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전략산업별 입지 및 특화기능을 부여
 - 논산·금산(정밀화학·생명공학) : 논산, 계룡 입암, 금산 인삼특수단지 등
 - 연기·공주(통신·정밀기기) : 연기첨단·월산지방산업단지, 공주(의당·장기) 첨단산업지구 등
- 대덕연구단지를 배후로 하여 「첨단벤처지구」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산업용지를 공급

- 지식기반산업 및 벤처산업 집적지를 형성함으로써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국가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대덕연구단지의 외곽지역(공주, 연기, 계룡출장소 등)에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창업 및 경영지원센터, 인큐베이터 등 벤처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중심지로 육성
- 대덕연구단지의 기술혁신기반의 수용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 및 제품화 협력 프로그램(Partnership)의 운영
- 기술·인력·시장·자금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관련산업 및 업종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 형성 지원
- 첨단영농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영농의 과학화를 주도하고 주변의 도시(대전시, 청주시)를 겨냥한 농특산품을 육성
- 지역 명품화 및 과학·기계화영농을 중점 추진하며, 원예, 특용작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물을 개발, 보급하고 관광과수(배, 사과 등) 시범단지 규모를 확대
- 대전시 주변도시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농산물 집산단지와 지역 특화상품의 유통단지를 유치
- 대전광역시도시권을 목표로 첨단영농기법에 의한 농산물 개발 보급 기반 구축

3) 광역권 여가공간발전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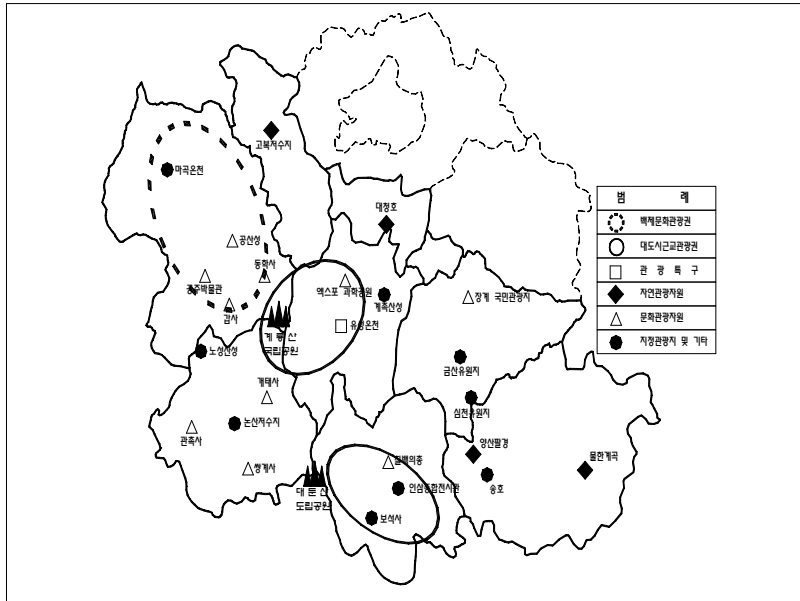
(1) 여가공간 현황

- 국립·도립·군립공원과 관광휴양지 6개소, 관광농원 3개소 등의 다수의 관광자원이 위치하며, 유성온천·계룡산 국립공원 및 백제문화권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관광지와 운동·휴양지 등 지정관광지는 대전·충남지역에 4개소, 충북지역에 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 대전·충남지역의 지정 관광지는 대전과 공주에 집중되어 있고
 - 대전광역시도시권내 관광여가체계와 연계한 관광루트 및 관광정보의 생산 공급 네트워크가 부재

< 표 1 - 28 > 주요 여가관광자원 분포 현황

구 분	개소	관 광 자 원 (면적위치)
국립공원	1	계룡산(61.148km)
도립공원	1	대둔산(24.5km ² ,논산,금산)
군립공원	1	고북(1.949km ² ,연기)
관광,운동,휴양지 (지정관광지)	6	양산팔경(영동), 장계(옥천), 마곡사(공주), 곰나루(공주), 유성온천(대전), 동학사온천(공주)
관광농원	3	우산(옥천), 산내대벌(대전), 부적(논산)
자연휴양림	3	만인산(대전), 장용산(옥천), 남이(금산)
기타 관광자원		십천유원지(영동), 천태산(영동), 민주지산물한계곡(영동), 금강 유원지(옥천), 탑정유원지(논산), 서대산(금산), 운주산성(연기), 유성온천(대전), 동학사온천(공주), EXPO과학공원(대전), 백제문화유적(공주) 등



< 그림 1 - 6 > 여가관광자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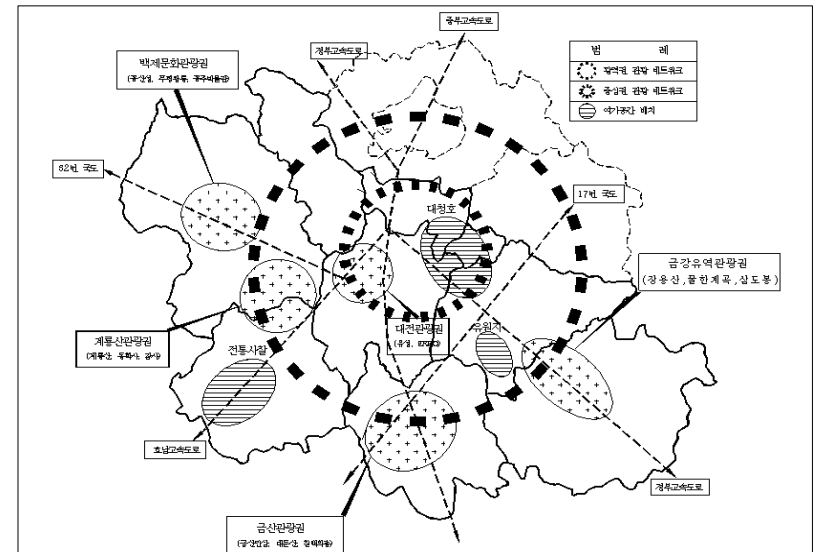
< 표 1 - 29 > 주요 자연관광자원 분포 현황

구분	자연자원	
대전광역시	보문산, 대청호, 계족산, 장태산, 유성온천, 식장산, 구봉산	
충청북도	영동군	옥계폭포, 양산팔경, 물한 계곡, 월류봉, 황학산, 칠봉산, 천태산
	옥천군	장용산, 팔음산
	청원군	옥화9경, 금단산
	보은군	정어품송, 속리산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관음봉, 감사계곡 등)
	논산시	대둔산
	금산군	12폭포, 적벽강
	연기군	고북저수지, 백로저수지

(2) 광역권 여가공간개발 계획

① 관광네트워크 구축 및 여가공간 배치

- 전국과 대전광역도시권의 관광여가체계와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및 관광정보의 생산·공급 네트워크 구축
- 광역권은 광역도시권의 도로망과 연계된 개발축 및 녹지상태가 양호한 녹지축을 따라 선적 또는 면적으로 배치
- 광역도시권에는 대전관광권, 백제문화관광권, 계룡산관광권, 금강유역 관광권 그리고 금산관광권으로 연계되는 광역도시권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교통망을 확충



< 그림 1 - 7 > 관광네트워크 구상 및 여가공간 배치도

- 유성관광특구와 엑스포과학공원의 대전관광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권 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광역도시권 전체와 연계되는 광역관광 네트워크를 연계
- 5개 관광권을 비롯하여 대청호 주변에 수변 여가공간을 개발하고, 옥천과 영동 일대의 대청호 상류에 자연유원지를 조성
- 광역도시권 서남측의 논산 일대에 관측사와 개태사 등 전통사찰지역을 활성화하여 종교문화의 관광 여가공간을 적절히 배치

② 통합관광권 개발 및 대표 관광상품 개발

- 소단위 지역관광권 설정을 지양하고 유사지역을 연결한 통합관광권을 조성하여 산재된 관광자원의 공동이용을 도모하며, 상징성과 경쟁력을 지닌 관광지대를 형성
-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광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통합적인 관광이미지를 제고
- 다양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관광상품 및 지역특산물의 개발을 촉진

③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가·관광 특화 프로그램의 수립

- 시·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특성화계획 혹은 어메니티 계획(Amenity Plan)을 부문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의무화
-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는 독자적인 여가·관광테마를 설정한 계획에 대해 재정과 인허가 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문화적 독자성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정착

④ 문화·관광 중심지역의 설정

- 엑스포과학공원과 대덕연구단지, 중앙과학관으로 이어지는 과학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 계룡산과 식장산, 계족산으로 이어지는 분지형 산악축을 활용한 문화관광지역을 조성
- 공산성, 무령왕릉, 공주박물관으로 대표되는 백제문화유적에 대한 교육 및 관광 개발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산품의 관광상품화와 칠백의총, 보석사 등 민족문화 유산을 보전·관리

⑤ 여가관광 활성화

- 관광상품개발, 관광 안내정보의 생산과 공급, 시장조사 및 마케팅, 각종 이벤트 개발·개최 등에 공동으로 대처
- 관광자원의 이용과 마케팅, 대규모 지역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조례와 제도를 정비
- 관광객 유치·안내 및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광진흥기금의 설치를 검토

⑥ 녹지축 등을 활용한 근린 여가공간의 조성

- 여가공간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역녹지축 및 도시내 녹지축을 활용하여 도보,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근린형이면서 순환형 여가공간을 조성
- 청소년들이 학교 근처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여가공간을 녹지축,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고 청소년 체육시설의 도시 내 설치 의무화
- 상징적인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 이미지와 관광매력 증진
- 산악 및 수변녹지축 주변의 조정가능지역에는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등을 조성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녹지축 유지를 도모

4) 광역교통 발전비전

(1) 광역교통 현황

① 광역도로망시설의 부족과 낮은 효율성

< 표 1 - 30 > 광역도로망 현황

구 분	연 결 구 간	차로수 (왕복)	비 고	
고속 국 도	경부고속국도	신탄진 시계~옥천 시계	6~8	-
	호남고속국도	회덕J/C~논산 시계	4	-
	남부순환고속국도	서대전J/C~비룡J/C	4	-
	대전~통영고속국도	남대전J/C~금산 시계	4	진주~통영구간 (L=48.8km)공사중
	대전~당진고속국도	유성J/C~공주 시계	4	공사중/총연장=7.83km 대전광역시 구간 : 5.67km
국 도	1호선	조치원~대전~논산	4	두마~반포간 공사중 (L=10.06km, B=20m)
	4호선	논산~대전~옥천	4~8	옥천길 확장 공사중 (L=4.5km, B=50m)
	17호선	청주~대전~금산	2~8	신탄진로 확장 공사중 금산선 확장 공사중 추부~대전간(건교부)공사중
	32호선	대전~공주	2~8	계룡로 확장 공사중
국가지원 지방도	32호선	구암교4~신탄진4~대청교	2~8	
	57호선	계룡4가~화암4가 시계	4~8	
지 방 도	635호선	대전~복수	2~4	대둔산길 확장 공사중
	639호선	대전~논산	2	벌곡길 확장 공사중
	608호선	대전~금남면	2	구 죽 로
	506호선	대전~청원군	2	대청호길
	571호선	대전~보은	2	회 남 선

- 도로 포장율은 1998년말 현재 대전광역시 96.2%, 충북 63.1%, 충남 71.1%로 낮

은 수준이고 도로연장은 전국의 18.3%를 차지하며, 인접도시간을 연계하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도로연장은 전국 해당 도로연장의 각각 13.9%, 17.6%로 다소 낮은 편임

- 고속도로를 비롯한 권역내 도로망이 통과교통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축에 비하여 동서지역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 도로망은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주요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도시간의 연결은 지방도에 의해 연결되는 실정임
- 대전권 전체의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광역교통기구의 부재, 시도간 협력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광역적 조정이 필요한데, 특히 교통수요관리(TDM), 교통체계관리(TSM) 등의 사업수행시 교통행정기능이 분산되고 시도간 종합적 조정이 어려움

② 주요 교통축의 도로혼잡 가중 및 대체수단 부재

-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도로위주의 교통망 구축으로 주요 간선도로축을 따라 개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도로혼잡이 가중되고 있음
- 대전 등 중심도시는 통과교통을 우회시키는 도시순환도로망이 없어 시내 교통혼잡의 가중요인으로 작용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축별 도로의 침두시 혼잡으로 대전~청주를 비롯한 공주, 논산, 금산, 옥천 등 중심도시의 유출입교통의 서비스수준 낮아 체증이 심각
- 일부 지역간 도로의 정비가 불량하고 확폭이 되지 않아 정체 발생하며, 지역간 도로와 시내도로와의 접속지점에서 정체현상이 심각

③ 광역철도망의 확충 미흡

- 철도망은 충청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기보다는 남북으로 경유하는 형태로서 동서간의 연계가 미흡

- 경부선, 호남선을 제외한 기타 노선은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노선이 여유용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열차의 추가 투입이 곤란한 실정
- 충청권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없어 도로이용 부담이 가중

④ 종합화물운송 체계 구축 미흡 및 물류시설 부족

- 도로교통혼잡의 심화, 소량 배송수요의 증대에 따른 소형화물차량의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화물차량의 평균 통행속도가 감소하고 운행효율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물류수송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여객과 화물의 경우 2020년에는 현재보다 약 2배, 국제여객 및 화물수요는 각각 4.4배와 2.2배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컨테이너기지나 복합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단지가 없어 대부분이 도시권 외부지역 시설에 의존하는 실정
- 대규모 물류거점과 물류간선 네트워크간 수송체계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체계가 미흡하여 운송 효율성이 낮음

⑤ 국제교류기반시설인 국제공항 등의 접근성 부족

- 세계 경제의 통합화·개방화·자유화 및 기업의 초국적화·탈규제화로 지방과 국가 간의 직접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며 인접도시와의 접근성이 미흡

(2) 광역교통 발전계획

① 전국 차원의 교통중심지 및 관문기능 강화

- 영호남의 관문역할을 하면서 경부·호남선철도와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가 분기하는 교통축 역할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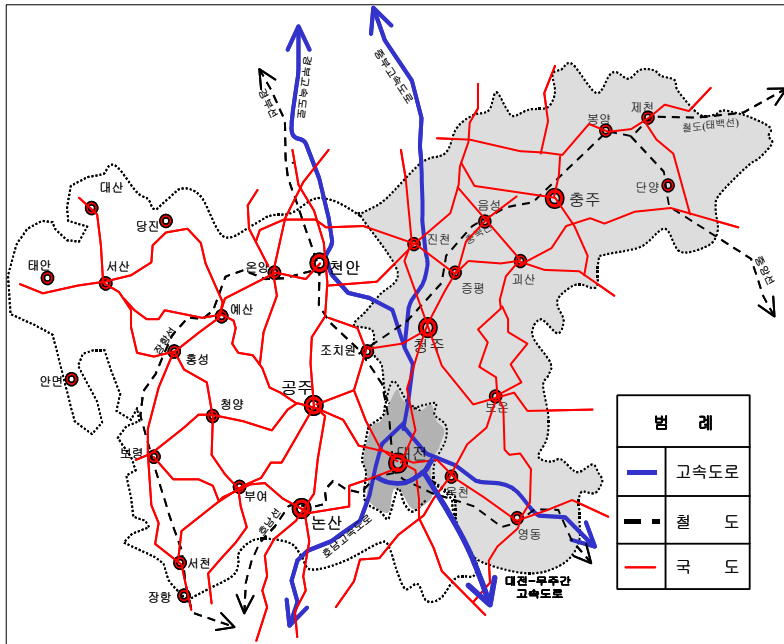
- 국토 중심부의 교통요충지로서의 기능 활성화와 상대적으로 미약한 권역의 동서간 연결축 보강
- 공간구조 구상을 뒷받침하는 권역내 교통연계체계 구축
- 청주공항 등 국제 교류기반시설의 기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권역내 연결체계 구축

② 권역내 동서 및 순환연계 도로망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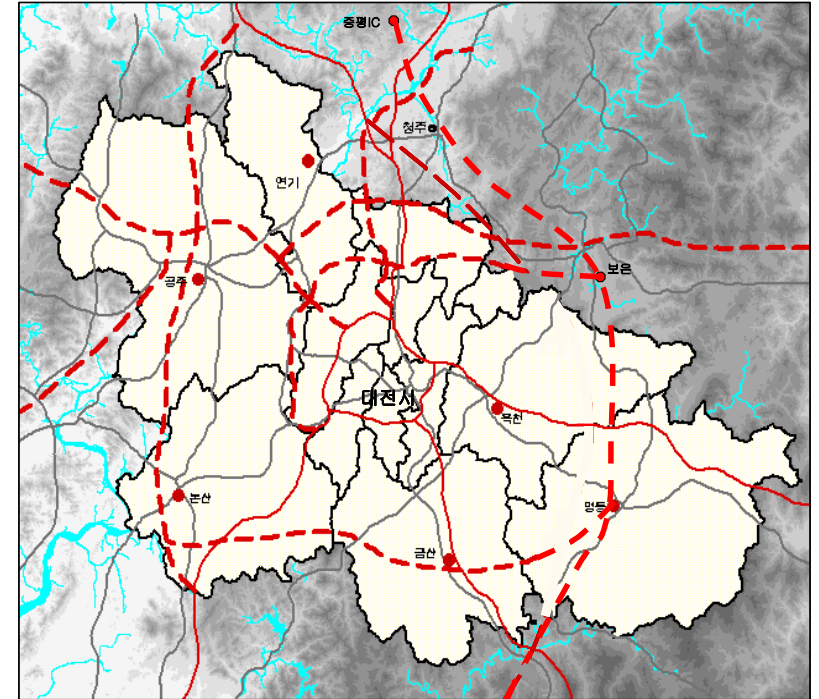
- 권역내 통합성 증진을 위한 기존 남북축 위주의 도로망에서 동서축을 보강
 - 대전~당진간, 대전 남부순환선 등
- 대도시간 광역교통망 개선
 - 대전~청주(공항)간 고속화도로 신설
- 중심도시를 중심의 방사형 체계를 보완하는 순환망 형성
 - 광역 다핵공간구조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광역순환도로인 ‘논산~금산~영동~청주~유성’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계획
 - 동부지역 연결을 위하여 국도 19호선(보은-옥천) 4차로 확장

< 표 1 - 31 > 광역도로망 구상

구 분	주요 경유지	비 고
남북축	천안~공주~논산 (천안~논산 고속도로)	-
	진천~증평~조치원~대전~금산 (중부, 경부, 대전-진주고속도로)	기 추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추진중
	보은~옥천~영동 (국도19호선, 4차로)	확장 및 개량
	대전~청주(공항)간 고속화도로	신 설
동서축	증평IC~청주공항~보은~영동	구 상
	논산~청주간 고속화도로(논산~금산~영동~청주~유성)	계 획
	대전~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신 설



< 그림 1 - 8 > 대전·충청권 교통망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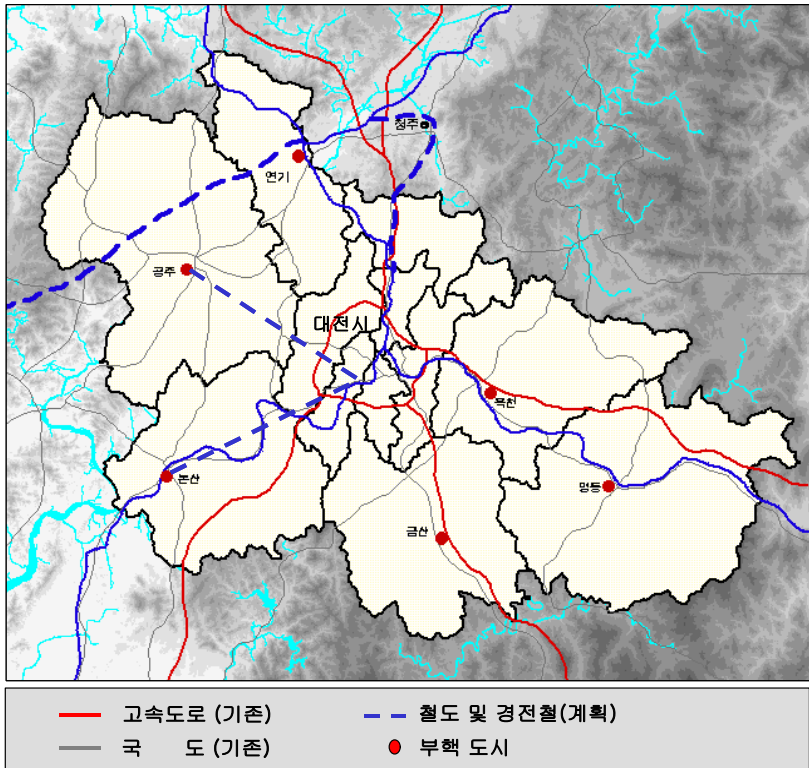
< 그림 1 - 9 > 도로 구상도

③ 지역간 광역철도 보강

- 정부 및 호남고속철도 연계로 전국 철도거점 역할 강화
- 광역도시권 주교통축인 청주(공항), 대전, 공주, 조치원, 논산방면 도시철도망 구축
- 기존 철도의 전철화 및 대전도시철도와 연결로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 표 1 - 32 > 광역철도망체계 구상

구 분	주요 경유지	비 고
남 북 축	대전~청주(공항)~조치원(경전철)	구 상
	서울~천안~대전~부산(경부고속철도)	추진중
	서울~광주(호남고속철도)	구 상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및 구상노선	추진중
	대전~옥천~영동(광역도시철도)	구 상
동 서 축	대전~공주, 대전~금산, 대전~계룡(경전철)	구 상
	대전(가수원)~논산(광역도시철도)	구 상
	대전(유성)~공주(광역도시철도)	구 상



< 그림 1 - 10 > 철도 구상도

④ 청주공항과의 교통망 연계체계 확충

-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근접한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은 대전에서 약 55km 거리에 있음. 광역물류거점시설로 청주국제공항이 있으나 화물처리능 미약
- 이에 따라 대전의 물동량 및 여객의 원활한 취급을 위한 항공 차원의 전국 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권 광역교통계획에서는 도로사업으로 대전~청주간 고속화도로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철도사업으로는 대전~청주간 경전철 사업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간 물류간선망 정비계획으로 지역간 축별 물동량 및 화물 화물차량 유출입, 주요 물류시설간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지역간 물류기반시설의 정비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있음. 이 중 물류간선망 정비사업으로 대전~청주공항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대전·청주권 광역교통망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⑤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이용자 중심의 종합환승체계 구축

- 대전도시철도의 건설에 따라 역세권 관리, 연계교통시설의 정비, 환승주차시설 확충, 보행편의시설 개선 등 연계환승과 관련된 서비스를 개선하며, 대도시권 광역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전주변 거점지역으로 연장
- 광역버스노선체계는 도시철도 확충 등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개선
- 대중교통수단간 요금체계의 통합, 환승할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수요의 증대와 환승편의를 증진
- 대전과 주변지역간 유출입교통의 처리를 위한 환승센터는 공간, 시설, 동선 등을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낙후된 터미널시설을 확충정비하며, 교통수단간·지역간 교통연계를 위한 정보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지역환승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⑥ 대전권 종합화물수송체계 구축

-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화물유통의 거점으로서 대전권내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간선교통망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속도로IC 주변의 조정가능 지역에 공용차고지를 배치하여 원활한 수송을 유도
- 대산공단 및 군장공단을 지원하는 동서 산업철도 및 물류터미널 계획

⑦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간의 정합성 유지 강화

- 상위계획 및 개별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이를 지원하는 교통체계 구축
- 통행유발이 큰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여가·관광시설 등 도시개발사업시 광역적 교통시설의 적정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를 강화
- 대중교통시설 및 결절점(환승역, 환승센터, 전철역 등) 주변토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

⑧ 종합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의 구축

- 신교통수단 도입, 과학적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첨단화, 정보화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
 -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된 대전광역시의 ITS사업을 주변지역으로 확산
- 도로시설간 연계기능 및 순환기능 향상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광역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 광역교통시설 및 서비스 확충과 유지관리, 관련 사업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분담방안 합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실무협의체를 설립 운영

5) 도시물류 발전비전

(1) 도시물류 현황

① 도시물류시설 빈약

- 대전광역시권은 군·장권, 아산만권의 광역개발계획에 따른 공단, 항만, 공항 개발과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공산품, 농산물 등의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통수요를 충족시켜줄 시설이 미비

② 창고 시설규모 협소

- 현재 대전광역시권에는 유성구 대정동에 복합물류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청원 부용 및 언기 부곡에 각각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립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
- 창고 면적은 대전광역시권내의 총면적이 265천㎡로서 전국 대비 7.4%에 머물고 있어, 창고수에 비해 규모가 협소한 영세 창고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표 | - 33 > 대전·충청권내 창고업 등록 현황

구분	계			일반 창고			위험물 창고			냉동냉장 창고		
	업체	동수	면적(㎡)	업체	동수	면적(㎡)	업체	동수	면적(㎡)	업체	동수	면적(㎡)
전국	1,631	2,628	3,576,036	1,382	2,226	2,386,566	27	127	28,705	222	275	1,151,766
대전	13	24	35,137	11	22	33,761	1	1	149	1	1	1,227
충북	93	154	128,856	88	149	106,384	-	-	-	5	5	22,472
충남	173	250	102,110	170	246	100,062	-	-	-	3	4	2,048

(2) 도시물류 발전계획

① 시설확충계획

- 대전·충남·충북을 포함하는 중부권은 총 물동량이 2001년에 1.72억톤, 2011년에 2.23억톤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유통단지 수요는 1단계(1997년-2001년) 49만평, 2단계(2002년-2006년) 32만평, 3단계(2007년-2011년) 34만평으로 총 105만평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대전시에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단지, 도소매단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권의 종합물류유통단지를 유성구 일원에 약 14만평 규모로 조성
- 충남 공주, 논산 등에는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권역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충북 옥천과 영동축을 중심으로한 물류관리전략의 수립으로 독자적인 중규모의 물류기능을 구축함.
 - 전국 중부지역의 내륙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정부 및 중부고속도로, 고속철도, 청주공항과 연계되는 충남 연기군 및 충북 청원군 일원에 내륙 화물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를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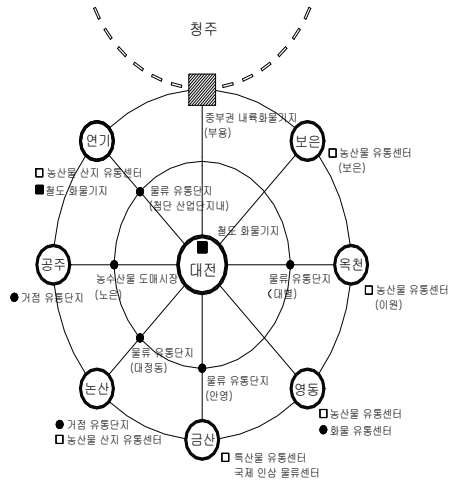
< 표 1 - 34 > 대전광역시권 물류시설 확충계획

구분	시 설 명	입 지	개소	사업기간	비 고
대전광역시	안영 및 대별동 물류단지	안영, 대별구도동	2	2007~2016	
	첨단산업단지내 물류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내	1	~2001	
	충남방적 인접지	대정동	1	2002~2006	
	농수산물도매시장	노은	1	1997~2001	확충, 신축
충청남도	회덕철도화물기지	회덕	1	2007~201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논산	1	2005~2010	
		연기	1	2005~2010	
	국제인삼물류센터	금산	1	2000~2004	부지2만평, 건평3천평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연기	1	2002~2010	
	철도화물기지	연기	1	2011~2020	5만평
	거점유통단지	공주	1	2011~2020	10만평
논산		1	2011~2020	6만평	
특산물유통단지	금산	1	2005~2020	인삼약초, 5만평	
충청북도	농산물유통센터	이원	1	2001~2004	
		보은	1	2001~2004	
		옥천	1	2002~2005	옥천읍
	화물유통센터	영동	1	2001~2005	용산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청원	1	2002~2010	부강	

② 시설배치 및 관리방안

- 국토공간상 중부권의 물류거점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현대적인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
- 광역적 차원에서 도로, 철도 등의 연계기능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전광역시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
- 시설의 차별화 및 위계화(내륙거점물류센터-지역중심유통단지-농촌지역의 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한 대전광역시권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청주공항, 철도, 도로 등의 교통망과 산업단지, 지역경제의 요충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입지 선정

- 물류시설은 제조, 금융 등 관련기능과 복합적으로 배치하여 단지화하고, 종합물류정보망과 연계, 운영하여 시설이용과 투자효율 제고



< 그림 1 - 11 > 대전광역도시권 물류체계 구상도

자료 : 건설교통부 외,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일부지역, 2005.

- 물류의 거점 및 연계시설 체계를 도입하여 기업간 개별수송을 억제하고 지역간 장거리 수송은 대량거점을 통한 수송을 촉진
-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확충하며, 산지의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화하여 유통시키는 농특산물 가공단지와 연계 강화

3.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 연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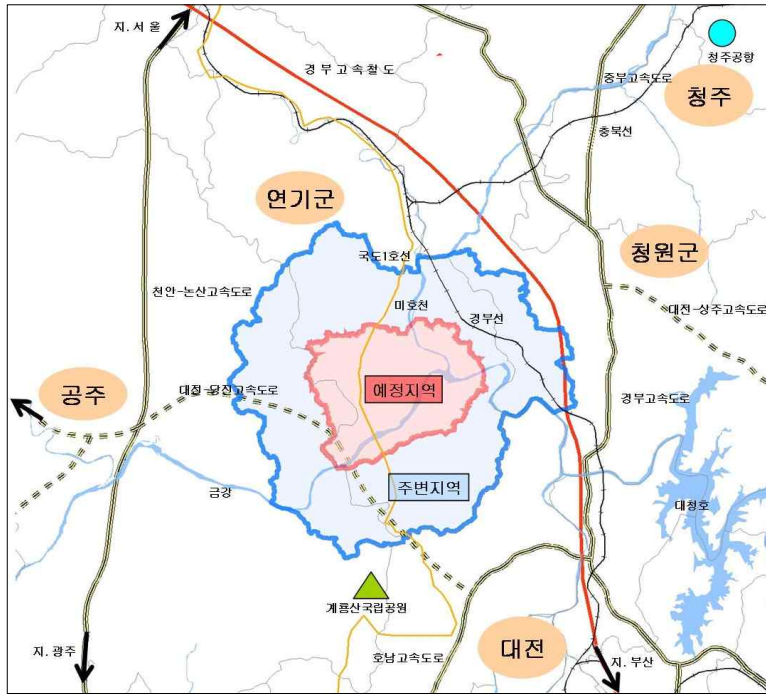
1) 행정중심복합도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의 약 2,212만평 되는 규모를 “예정지역”으로, 6,769만평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2006년 부지매입 완료, 2007년부터 부지조성 착수, 2011년부터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대학 등 교육 및 첨단산업기능을 유치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가진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규모를 결정하게 될 이전 대상 기관은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방부를 제외한 9부2처2청을 이전하고, 정부부처 이외에 23개 정부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회 소속 인문사회계열 출연연구기관도 포함됨.

< 표 1 - 35 >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규모

예정지역	주변지역
73.14km(2,212만평), 31,723필지	223.77km(6,769만평) *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
* 2개 시·군, 5개 면, 33개 리	
* 토지현황 : 임야(30.39km)	
답(16.74km)	
전(7.39km)	
대지(1.77km)	
기타(16.85km)	



< 그림 1 - 12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치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전의 배후기능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주기관 특성을 분석해 보면 주로 공공기관 위주이며, 행정부와 더불어 공공위원회,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및 연구자, 교육종사자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 이전기관 및 인구유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후도시에 요청되는 기능은 행정서비스 기능, 회의·컨벤션 등 서비스 부문, 교육 및 문화 기능 등에 일차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

-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대전 중심으로부터 25Km, 청주시로부터 22Km, 천안으로부터 3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도시의 사회, 경제적 특징 및 기존 계획상의 발전 방안을 고려하여 각 배후지별 기능을 예상하면 다음과 같음.
-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원하는 과학기술허브로서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첨단기술의 상업화를 선도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관련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연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대전에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와의 연계하에 행정서비스 기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유입 인구에 대한 교육 및 문화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요약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현재까지 대전시가 추구해온 중점적 도시 기능인 교통중심기능, 첨단산업기능, 과학기술연구허브기능, 국방산업·군사기능 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이에 더해 취약부분인 호텔·컨벤션 산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 4차 서비스 기능, 문화예술 기능, 교육 기능 등은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표 1 - 36 > 광역생활권 도시별 기능분담

도 시	분 담 기 능
신행정수도	- 국가중추행정기관 - 경제사회부문 연구소 - 첨단기업 투자지원시설
대 전	- 과학기술분야 대학 및 연구 - 정부대전청사, 계룡대 - 첨단제품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 -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써 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교육, 문화, 오락, 주거기능)
청 주	- 전자통신 관련 IT산업 - 보건·의료·계약 등 BT산업 - 항공산업, 음식료업, 인쇄출판산업
천안·아산	- 전자정보기기 관련 대기업 본사, 수도권 대학이전,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생산기능 수용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획되고 있는 산업업종 유치

계획을 살펴보면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S/W 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이 전략적 유치산업으로 선정되고 있어 대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략산업과의 중복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전략적 유치산업군과 직접적 경쟁을 피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산업군 육성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수요 창출 기회를 적극 창출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 일차적으로는 건설 등 인프라 관련 산업에서의 수요창출이 예상되나, U-행복도시 건설계획 등을 검토하면 텔레매틱스, 인텔리전트 빌딩, SW 콘텐츠 등 첨단전자정보산업에서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대전광역시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기능분담과 두 도시의 상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함.



< 그림 1-13 > U-행복도시의 미래전망 예상도

2) 대덕연구개발특구

(1) 대덕연구개발특구 건설계획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에 부합하는 건설계획

- 연구개발,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연구기능과 비즈니스기능이 결합된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여 선진한국의 성장엔진으로 기능
- 연구개발 사업화와 벤처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인프라의 조성을 통해 글로벌 클러스터로의 도약에 기여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건설계획의 기본방향

-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간계획
 - 대전시 공간구조에 부합하는 개발방향 설정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연계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 주변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
- 기술이전·사업화 조직간 연계 구조 구축
 - 연구개발특구 기능에 맞는 연구시설 부지의 확충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사업화를 위한 기업 활동시설의 확충
- 지역 특화 기능 배치
 - 특구내 각각의 사업지구별 특성부여를 통한 개발계획 수립
- 커뮤니티 존(Community Zone)을 통한 지역내 교류 활성화
 - 커뮤니티 존은 각기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특구내 종사자들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교류하는 장소로 특구 문화와 여가활동의 중심지 역할
 - 특구 지역내 교류의 장으로 중심 커뮤니티 존을 특구 중심부에 도입하고, 각

각의 개발구역내 소규모 커뮤니티 존을 도입하여 상호 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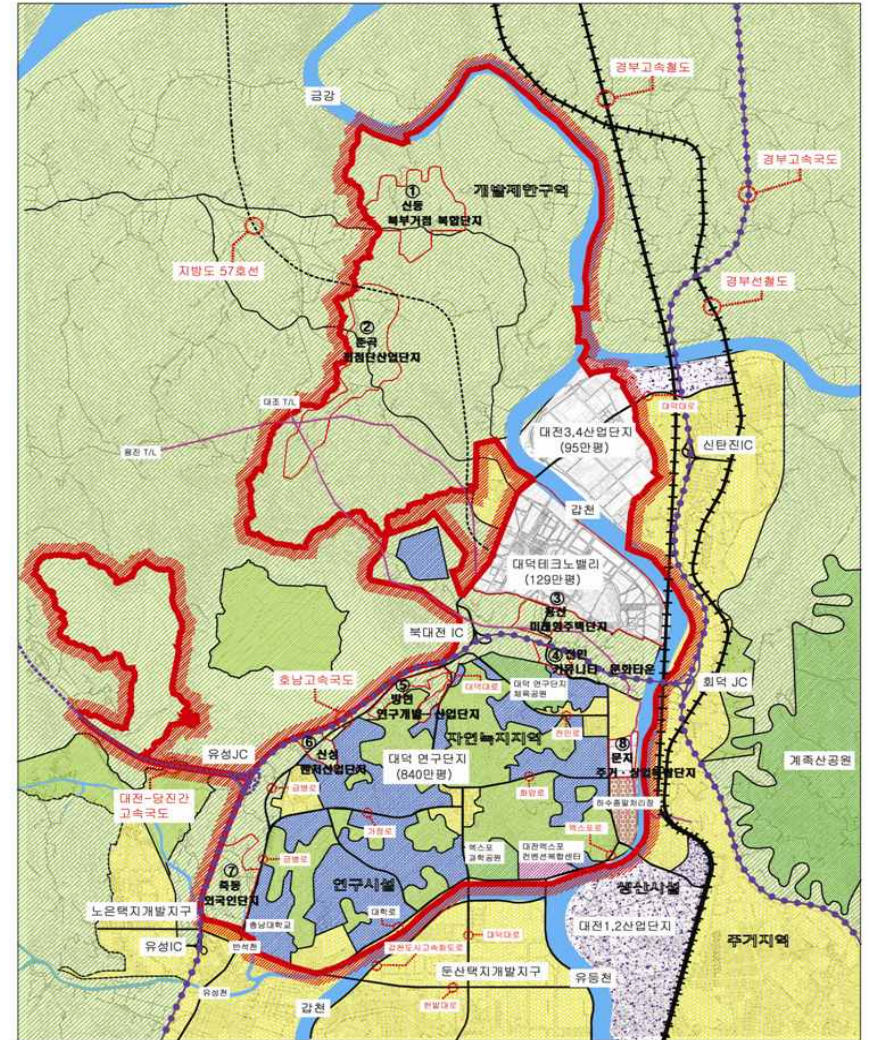
- 기 개발지역은 별도의 개발계획수립 없이 기존 계획을 수용하고 미 개발지역은 특구 관리계획에서 관리방안 수립
 -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전3·4산단 등 기 개발된 지역은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존 현황 및 계획을 수용
 - 특구구역 가운데 신규 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존 현황을 고려하여 특구법 제34조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서 관리방안 수립

(2)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리적 범위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인근 지역으로 함 (특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 표 1 - 37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소재지	특구의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궁동, 어은동, 구성동, 노은동, 하기동, 수남동, 외삼동, 신성동, 가정동, 도룡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운동, 전민동, 문지동, 원촌동, 봉산동, 탑립동, 용산동, 관평동, 송강동, 금고동, 대동, 금탄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신일동 일원



* 붉은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대덕연구개발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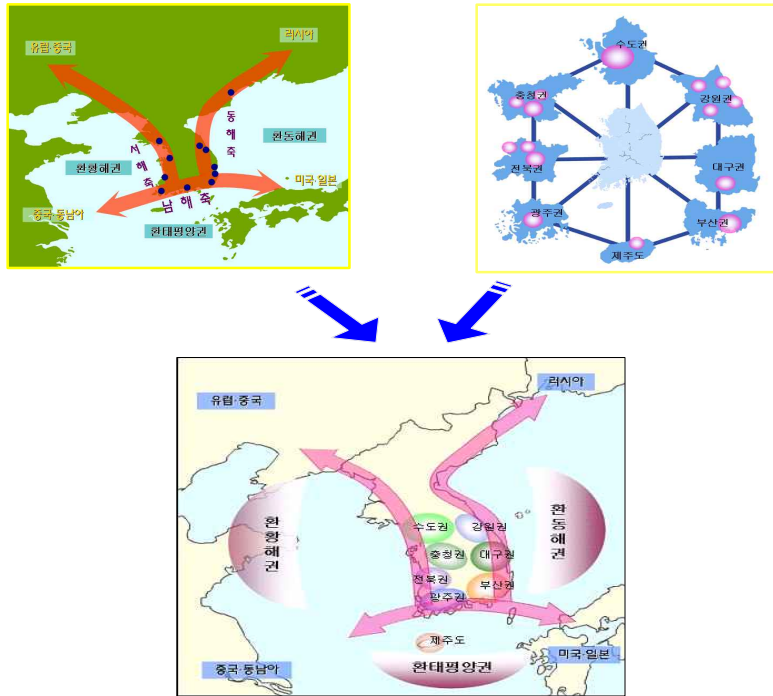
< 그림 1 - 14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

4.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5~2020)

(1) 목표와 추진전략

구분	내용
계획기조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 ◇ 지역간 통합과 연계를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π) 국토축 발전
계획목표	① 균형 국토 ② 개방 국토 ③ 녹색 국토 ④ 복지 국토 ⑤ 통일 국토
주요내용	① 자립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② 동북아시아의 국토경영 ③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④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 ⑤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⑥ 분권과 거버넌스 기반의 국토계획 집행



(2) 국토종합계획에서의 대전광역시 발전방향

① 기본목표

-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 문화적이고 품격있는 도시
-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중심 도시

② 추진전략

-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중심도시로의 위상강화와 도시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다핵공간구조 형성
- 동북아 R&D 허브도시 및 과학기술 도시 기반의 조성
- 효율적·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선진교통도시 실현
-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도시 구현
- 지역의 환경성 강화와 환경의식 제고로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환경도시 실현
-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복지모델 실현

③ 전략별 추진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중심도시로의 위상강화와 도시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다핵공간구조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균형적인 도시구조 형성
- 도시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다핵공간구조 형성

-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신업무기능을 강화하여 정보화 도시로의 개발을 추진
-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쾌적한 오감이 자연스럽게 체험되는 도시환경을 조성

□ 동북아 R&D 허브도시 및 과학기술도시 기반의 조성

- 대덕 R&D 특구를 동북아 최고의 연구개발 허브로 육성
- 혁신주체의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 대덕밸리 R&D인프라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을 확충하고 대덕밸리 EC기반, 중소 기업 통합DB와 포탈ASP 서비스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

□ 효율적·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선진교통도시 실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중심도시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효율성·편리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형 교통체계 구축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

□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도시 구현

- 국제간의 정보(과학) 및 문화 교류의 활성화
- 대덕연구단지 IT·CT기반과 연계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중심도시로 도약
-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등 기존의 공연 인프라를 활용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전시, 지역단위의 소규모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 인프라 및 문화전달 네트워크를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교육 중심도시 구현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도시 형성

□ 지역의 환경성 강화와 환경의식 제고로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환경도시 실현

- 지역형 환경기준의 마련, 오염총량제도의 도입, 환경기술·상용화정책의 추진과 병행하는 R&D사업을 강화
- 신교통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절감과 대체연료 및 자원에너지 절약형 신기술 개발을 도모
- 도시생태라인을 살리고 도시개발과 확장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자연형 도시계획을 강화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복지모델 실현

- 현장중심의 밀착형 복지 네트워크 기반 구축
- 보육조직의 정비를 통한 선진 보육행정 체제를 구축
- 노후생활 안정 및 보호체계 확립

2) 대전권광역도시계획(2001~2020)

(1) 목표

- 도시·지역별 적정기능 배분과 충청권의 균형발전 도모
- 첨단과학기술의 지식·정보거점 도시권의 구현으로 자립경제기반 구축
- 자원절약형 토지이용 관리와 공간구조 구축
- 개발제한구역의 적정관리·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2) 기본방향

· 대전, 청주의 상호기능 보완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 도시권 육성	→	·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의 두 도시권의 고유기능 강화 · 정부대전청사의 국가중추행정기능,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기능 등과 청주국제공항 기능을 상호보완한 광역적 이용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국가중추행정 및 업무기능의 수용 기반 구축	→	· 정부대전청사의 12개 외청과 중앙정부기관을 연계한 행정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중심도시인 대전에 광역도시권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단지 조성
· 경쟁력 있는 자족 경제권으로 육성	→	· 고부가치산업 위주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취약한 산업구조 개편 ·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정보산업, 지식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 중심도시인 대전의 적정인구 수용을 위한 시가지정비, 도시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주변지역의 사읍급 소도시 및 산업단지 배후에는 농촌개발의 거점기능, 쾌적한 전원주거기능을 강화하여 정주효과를 제고

(3) 기본전략

기본전략	내용
도시기능, 교통망, 정보·교류망의 광역적 이용체계 구축	· 대전이 자족적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하여 첨단연구생산기능국제적 업무기능, 정보·물류시설, 여가공간 등 도시시설을 확충하고, 주변의 사군 중심지에는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도시기능을 집적 · 청주국제공항, 대전-청주공항간 고속도로, 고속간선도로, 도시전철망을 연계, 주변 사군간을 연결하는 순환간선도로, 도시별 우회도로 등을 정비하여 광역도시권 전체적으로 방사순환형 광역교통망을 형성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의한 대전 광역도시권의 기능 확충	· 대전은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평양에 대칭되는 한반도 남부의 행정군사업무정보교통중심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치 · 대전과 주변도시기능을 특화·전문화하여 상호 긴밀히 보완작용을 하는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생적 발전을 유도함
첨단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경제기반 강화	· 첨단기술정보 사회에 대비한 연구개발 및 교육기능을 유치 · 과학산업단지, 대학, 과학의료연구를 연결하여 산·학·연 인큐베이터체계를 구축 · 대전과학연구단지-대전과학산업단지-연기첨단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하는 교육연구산업 주거단지 중심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마련
도시별 적정인구 수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	· 대전, 청주의 적정인구 수용과 산업단지 배후지에 전원적 신시가지 조성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 · 계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배후 신시가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배후 신시가지 등 전원적 신시가지 개발 · 읍지역 소도시는 쾌적성이 확보되는 환경관광도시로 육성

(4) 광역권 도시계획에서의 대전의 생활권 정비방향

-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간구조 개편방향 및 광역교통 등과 연계하여 6개 생활권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음
- 생활권은 중심생활권(대전광역시), 동부생활권(옥천군, 영동군), 서부생활권(공주

시), 남부생활권(금산군), 서남생활권(논산시), 북부생활권(청원군, 연기군, 보은군)등으로 구분함

- 중심생활권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국가행정·과학기술·업무·금융의 중추기능 강화 및 대전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정비과제를 설정함

< 표 1 - 38 > 중심생활권의 정비 방향

구 분	주요 기능	개 발 방 향
도 심 권	·둔산권	·국가중추 행정업무금융 중심기능
	·기존도심권(원도심)	·광역도시권의 고차적 상업교통정보 중심기능
부 도 심	·유성권	·과학기술국제적 종합관광위락휴양 리조트 및 국제 교류기능
	·진잠권	·논산, 계룡 등과 연계한 물류·유통상업기능
	·신탄진권	·연기, 청주 등의 공업기능과 연계된 첨단과학산업벨트 중심기능

3) 대전도시기본계획(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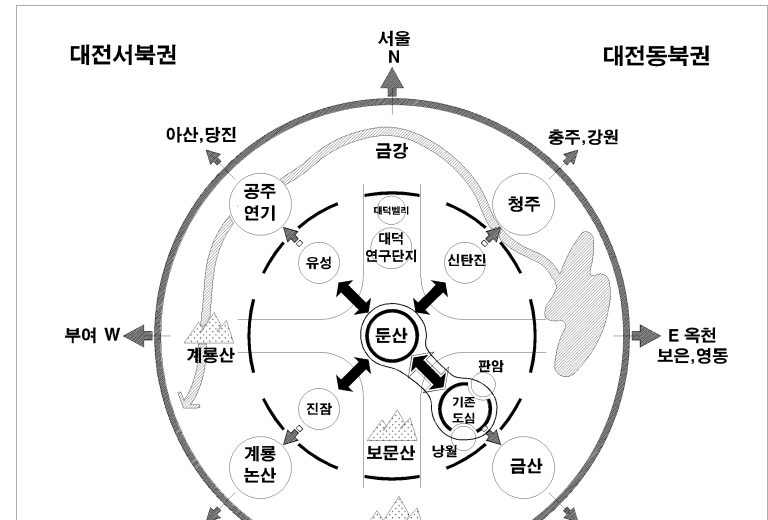
(1) 목표와 전략

삶의 질 최고의 “자연, 과학, 문화”의 도시		
아름다운 환경도시	국제적인 행정과학도시	격조 높은 문화도시
· 청정한 도시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 모도시 기능 및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 도시 건설	· 문화예술을 창조 발전시키는 개성있는 도시 조성
·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공유하는 도시 조성	· 과학기술·지식정보·물류유통을 선도하는 대전광역권 중추도시 건설	· 격조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도시 건설

(2) 도시공간구조

① 광역시·도 골격 구상

- 균형있는 도시발전축 정립을 위해 신탄진~둔산~서남부를 주개발축으로, 유성~기존도심~동남권 방향을 부개발축으로 설정
 - 대전서북권 : 유성을 거점으로 공주, 부여 등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역사관광 및 휴양리조트의 중심지 기능 부여
 - 대전동북권 : 신탄진을 거점으로 연기, 충주 등의 공업기능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한 산업벨트의 중심지 기능 부여



< 그림 1 - 15 > 광역도시골격 구상도

- 대전서남권 : 진잠을 거점으로 논산, 계룡 등과 연계한 물류유통상업의 중심지 기능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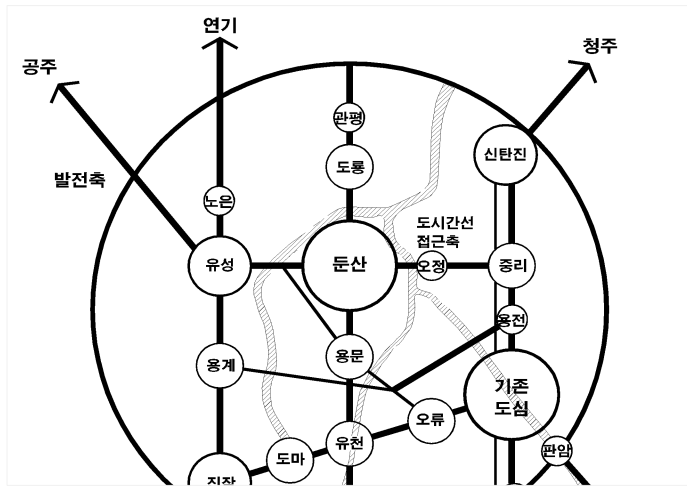
- 대전동남권 : 판암, 낭월을 거점으로 옥천, 금산, 영동 등과 연계한 첨단농업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의 중심지 기능 부여

② 도시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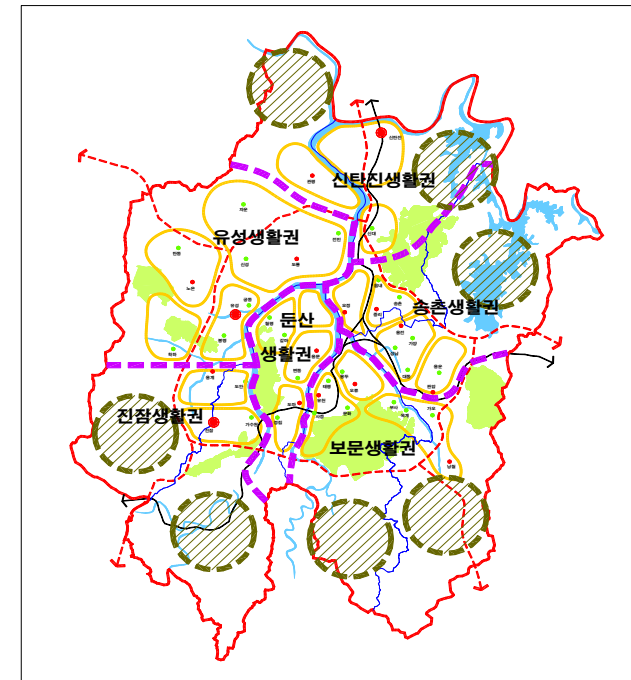
-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구조
- 도시전체의 기능이 조화될 수 있는 통합적 도시구조
- 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생적 도시구조
- 도시내 모든 구성요소가 균등히 발전할 수 있는 형평성이 고려된 도시구조
-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 3부도심, 13지구중심으로 구성

< 표 1 - 39 > 대전시 도시공간구조 구상

구 분	명 칭	내 용
2도심	기존도심	광역교통 및 일반업무 중심지, 동남부 지역의 거점
	둔 산	행정, 업무, 금융의 중심지
3부도심	유 성	관광·위락·국제교류 중심지, 서북부지역 및 광역교통의 거점
	진 잠	물류·유통의 중심지, 서남부지역 및 광역교통의 거점
	신 탄 진	도시기반산업의 중심지, 청원·청주 지역과 연계한 동북부 지역의 거점
13지구 중심	용 전	숙박, 상업, 업무
	용 계	미래정보화 시범단지의 중심지, 업무, 주거
	유 천	숙박, 상업, 업무
	도 룡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지, 산학연·주거
	중 리	지역간 교통의 중심지, 업무
	오 류	업무, 상업
	용 문	업무, 상업
	도 마	상업, 주거
	판 암	영동방면과 연계 발전
	낭 월	금산방면과 연계 발전
	오 정	상업, 유통
	노 은	상업, 유통
	관 평	첨단산업 및 벤처



< 그림 1 - 16 > 도시공간구조도



< 그림 1 - 17 > 생활권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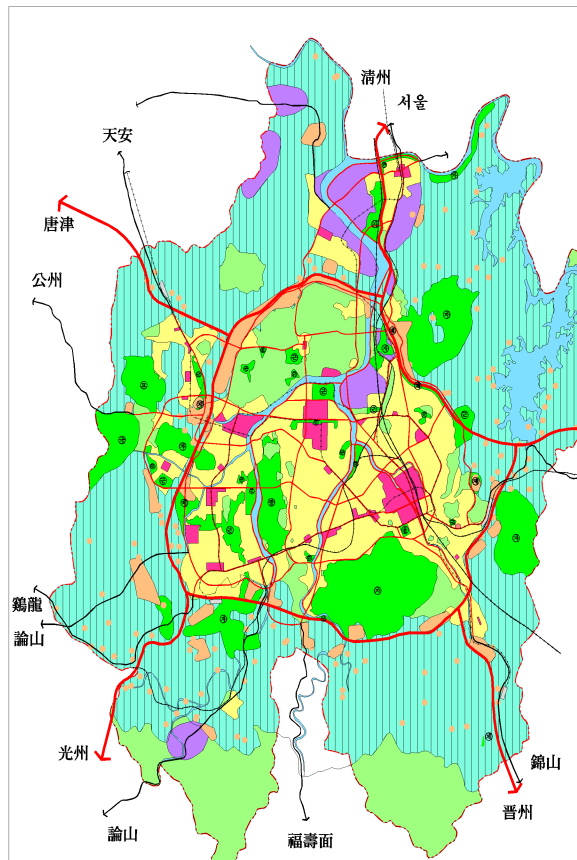
(3) 생활권 구상 및 개발전략

● 6개 대생활권, 20개 중생활권, 7개 농업중심생활권으로 구분

대생활권	주기능	특성화 전략
· 신탄진생활권	· 산업(공업)첨단산업	· 2천년대 중부권산업 발전의 중핵지
· 유성생활권	· 관광, 위락, 첨단연구	· 국제적 종합관광, 위락의 요람
· 둔산생활권	· 행정, 업무	· 행정중심, 업무, 금융의 중심지
· 중촌생활권	· 중심상업, 업무, 위락, 교통 정보의 중심	· 21세기 고도정보화, 교통의 중심지
· 진잠생활권	· 물류유통, 주거	·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 및 친환경적 전원주거지역
· 보문생활권	· 중심상업, 위락, 문화, 물류 유통	· 한밭의 상업, 문화의 심장부

(4) 주요 생활경제지표

구 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구(천명)		1,391	1,790	1,960	2,100
주 택	주택수(천호)	346	514	587	683
	(보급률, %)	(99.0)	(99.0)	(99.5)	(100.0)
상수도	급수인구(천인)	1,335	1,754	1,940	2,079
	(상수도보급률, %)	(96.0)	(98.0)	(99.0)	(100.0)
하수도	1인1일 급수량	406	530	550	550
	하수처리인구(천인)	1,293	1,736	1,921	2,058
교 통	(하수처리율, %)	(93.0)	(97.0)	(98.0)	(100.0)
	자동차대수(천대)	383	510	596	697
목적통행(천통행)		3,000	4,230	4,583	4,834



3)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1)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9년 - 2013년(5개년)

-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역
- 대상사업 : 선도산업,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거점지역육성, 교통·물류망, 문화·관광 및 자원이용,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시군단위)

(2) 비전

-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최종목표는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New HEART”로서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의 선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충청광역경제권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도산업,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및 자원이용 그리고 광역간 연계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음
- 본 추진사업들은 충청권의 핵심 산업군들 간의 연계와 지역적 연계구상을 통하여 발굴되었으며, 분야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들로 향후 충청광역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역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됨

(3) 추진전략

- “국내 최고 IT·BT 산업의 핵심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연계산업 활성화를 통한 첨단과학 거점 개발전략과 광역권 선도·전략산업간 연계구축 및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선도·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산업기반의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반형 광역거점육성 및 연계강화”는 광역경제권의 거점기반 구축과 도시 간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의 핵심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화산업간 융합을 통한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통합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분야	추진목표	추진사업
선도산업 육성	선도산업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연계사업 ·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 차세대 무선통신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거점화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창조적 기술 융합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에너지반도체광역클러스터구축/차세대시스템반도체기반 융합 기술개발사업/ LED클러스터 /차세대시스템 IC 비즈니스 허브구축 · 의약바이오 산업테스트베드 구축/바이오 인프라인계 지원사업 · 우수특허창업 및 핵심기술사업화지원/차세대정보융합신용합 기술개발사업/녹색소재융합 산업기반 구축/바이오산업클러스터구축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선도산업 전문인력양성 및 과학기술경쟁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산업 인재양성/인적자원통합관리시스템구축/ BIT전문 인력양성/국방산업전문인력양성 · 부품소재IT융합산업연구기술개발/첨단 의료산업 육성 선도프로젝트지원/친환경석회석신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
발전거점 육성	과학기술반형 광역거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 국제과학상용화 벨트 · 첨단이노밸리단지 · 국방과학기술클러스터
교통 물류망 확충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 물류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선 복선전철/제2경부고속도로/제2서해안 고속도로/ 동서4축 고속도로/대전-정주공항간 BRT · 충청권광역전철/대전-오송도시철도/정주공항활성화/ 충청선 산업철도/중정 고속화도로/대덕특구 물류단지
문화관광 및 자원이용	창조적 충청문화창조 및 자원이용 지속성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역사문화대로/그린스파벨트/에코유지임드러스트 브리지/아즈카문화원류 타방관광투드/충청관광공사신설 · 폐자원에코타운/백두대간수자원 산업지역활용화/ 금강수계 하천 생태네트워크/ 산림생태네트워크구축/부유 쓰레기공동처리/기후변화대응센터건설
광역권간 연계협력	광역간연계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초광역 신산업벨트/내륙첨단산업벨트구축 · 한방생산지점연계 광역네트워크 구축/신재생에너지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합된 신발전지역 창출”을 목표로 지역내 문화관광분야 및 환경자원개발을 위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기반 조성 및 신발전지역 성장 동력원으로 녹색성장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중간목표와 전략은 각 분야를 범주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충청광역권의

핵심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4) 세부추진방향

□ 선도산업 분야 추진전략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의약바이오와 New IT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의약바이오 분야는 세부프로젝트로 맞춤형 의약 글로벌 라이선싱거점 구축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연계사업’과 국내외 시장 진입용 글로벌 의약개발을 통한 세계 5대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 사업’을 선정하였음
- New IT 분야에서는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글로벌 거점화를 위해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 선정되었으며, New IT 산업기반을 통한 그린 반도체 글로벌 시장선도를 위해 ‘IT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거점화 사업’이 세부프로젝트로 선정되었음
- 이상의 선도산업분야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충청권을 첨단과학기술을 신성장 동력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전략과 사업들을 선정하였음

□ 전략산업육성 분야 추진전략

- 충청광역경제권의 전략산업 목표를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조적 기술융합 산업 육성”으로 정하였음
-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Hub & Spoke 광역클러스터 구축과 전략·특화산업의 혁신거점 및 인프라의 광역연계를 추진전략으로 하였으며, 기술 융합을 위한 New Combination을 통한 기술융합 산업육성과 전략·특화산업의 광역적 발전기반 확충을 전략으로 수립하였음

- 전략산업분야는 충청권 3개 지역이 기존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연계가능한 산업군들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적 연계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신규사업간의 연계 및 분야별 결합을 통하여 총 10개의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음
- 특히 신규사업들은 기존 전략산업이 갖는 규모의 한계와 연계부족을 극복할 수 있어 기존 전략산업의 광역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됨

□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분야 추진전략

- 선도산업·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분야의 전문인력양성과 선도산업과 전략산업분야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기반 마련 및 기술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거점대학육성)과 충청권 인재육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충청권 BIT 융합 기술 전문인력 양성,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신규사업이 발굴되었음
- 과학기술진흥 분야에서는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 부품소재 IT융합산업 육성사업, 첨단의료산업육성 선도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소재 재활용산업 클러스터구축 및 육성 사업의 신규사업이 발굴되었음

□ 발전거점 분야 추진전략

- 충청광역경제권에서는 발전거점 육성을 위하여 충청권의 첨단기술 역량을 활용한 과학기반형 광역거점 개발 및 육성과 충청권의 행정, 산업경제, 문화 관광거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음
- 추진전략으로는 첨단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R&D특구와 BT와 IT분야가 조화된 청주·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오창 생명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첨단 IT산업단지인 천안·아산을 연계한 첨단과학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미래과학기술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방사광가속기 등 기초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자족형 글로벌 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교통물류망 확충분야 추진전략

- 광역경제권의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서는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통합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청권을 국가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성을 목표로 충청광역경제권내 성장거점간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신성장거점의 효과적 조기육성을 이 분야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추진전략으로는 충청권의 광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상호 긴밀한 신교통수단 구축, 충청권 내부 고속도로망의 연결체계 정비를 통해 공동교통망 구축, 충남의 향만, 충북의 공항을 중부내륙화물기지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물류거점시설 확충, 그리고 수도권과 타 광역경제권을 연결해주는 원활한 가교역할을 부 고속도로록 공동축,발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문화·관광육성 및 자원이용 효율화 분야 추진전략

- 문화·관광육성을 위하여 신용합을 통한 창조적 충청문화 창조 및 자원이용의 지속가능성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뉴 페이스(New Face)·뉴 시너지(New Synergy)·뉴 서비스(New Service)·뉴 임파워(New Empower) 충청문화관광 창조를 제시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체험형 지역문화 발굴, 선도형 문화산업 활성화, 그리고 허브형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서 충청권 역사문화대로 구축, 그린스파벨트 구축, 예코 뮤지엄 트러스터 브리지 형성 등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음
- 또한 자원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환경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환경자산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공동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충청광역권 폐자원 예코타운 건설, 충청광역권 산림생태네트워크 구축, 금강수계 하

천 부유쓰레기 공동처리 등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충청권간 연계계획을 수립하였음

□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방안

- 충청광역권에서는 충청권 발전을 기반으로 광역권간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국가 전체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표로 첨단과학기술의 중심·연계체제 구축과 녹색 성장동력의 성장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음
- 주변 광역권간 연계 전략사업으로 서해안 초광역신산업벨트 구축, 내륙초광역개발권 조기 구체화, 한방생산거점 연계 광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초광역클러스터 구축,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태양광에너지 공동개발, 충청·제주 상생교류협력 강화 등의 연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였음

4) 대전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안)

(1) 추진목표

- ‘효율적·환경친화적인 선진 물류·유통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신속·정확한 물류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되, 쾌적·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을 지향하여 선진 물류·유통도시 육성 및 도시경쟁력 제고

(2) 부문별 개선방안

① 물류시설체계 정비 방안

- 물류시설은 2015년까지 봉산동 일원에 10만평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기능개선을 통해 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계획함.

- 지구물류센터는 권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대흥동, 월평동, 가수원동, 외동, 봉명동, 용전동 일원에 건설.
- 또한,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개선에는 재정여건, 기존 상권유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접근하되 동선체계 개선, 주차장 신설 등은 리모델링과 함께 검토.

② 물류정보화 계획

- 도시물류정보제공시스템(CLIOS; City Logistics Information Offer System) 구축
 - DB구축을 위한 현황 파악
 - 교통정보센터(TMC)를 이용한 1단계 활용
 - DB구축을 위한 입력 및 출력 format 설계
 - 도시물류정보제공시스템(CLIOS) 구축 및 운영
- 화물자동차 콜센터(Call Center) 운영시스템 시범 운영
 - 대전광역시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차량 운행실태 및 여건 파악
 - 화물운송업체(협회)와 공공기관간의 협조를 통한 콜센터(Call Center)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RFID Tag를 이용한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출입관리시스템, 화물차량 관리시스템
 - 하역·분류 관리시스템, 창고 관리시스템

③ 단위물류지구 계획

- 물류관리구역 대상지 선정
 - 단위지구개선사업은 중앙시장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물류관리구역 개선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토록 함.
 - 시범지구는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며, 단위지구 중 개선필요성이 있는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문화동에 입지한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시설에 대

해서는 부분 정비차원에서 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선정함.

- 중앙시장 정비방안
 - 조업·주차공간 확보(32면)
 - 중앙로, 중교로, 대전천변길, 인효로상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주변 가로 소통능력 확보
 - 원동삼거리의 좌회전 처리, 중앙시장 2길의 가로 정비, 종합 안내체계 설치, 부설주차장의 확보, 보행육교의 평면화

④ 화물운송체계 효율화

- 물류 표준화 추진
 -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의 국제표준화 유도
 - 물류표준화 인센티브제 도입 및 물류표준화 자금지원제도의 일원화
- 화물자동차 통행 및 수요관리
 - 3단계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시행
 - 1단계 : 통행제한구역 강화 - 동서로, 삼성로, 인효로, 계룡로, 계백로, 대흥로를 연결하는 내측지역 모든 도로
 - 2단계 : 계획시범사업 - 한밭대로, 금병로, 진잠로, 진터19길, 월드컵길, 계룡로, 문화1길을 연결하는 내측지역 모든 도로
 - 3단계 : 전면 실시

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 5개 후보지의 총 주차가능면수는 약 2,700면으로 우선순위별로 약 2년에 1개소씩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효과를 모니터링하여 개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 권역별 수요 및 개발 용이성을 감안할 때 개발 우선순위는 와동, 안영동, 외삼동, 봉산동 순으로 건설

5) 대전권관광개발계획(2001~2006)

(1) 개발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① 개발의 기본방향

- 대전 미래상과 부합된 현실적인 지역발전 수단책
- 21세기 관광대국 실현에 동참하는 대전지역관광 진흥책
 -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용
- 관광의 본질과 원리에 충실한 특색 있는 비전책
 -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의 적용

② 개발 목표

□ 관광한국의 중부지역 관광 거점화

-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며 방문자 경험의 질이 보장되고 동시에 지역주민 생활에 편익을 창출한다는 기조 유지

□ 첨단과학 특화 관광도시로의 육성

-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 관광개발과 첨단과학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화 개발, 유성관광특구에 대한 정비 및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경쟁력 높은 국내외적인 관광도시로 육성
 - 깨끗하고 쾌적한 초록환경도시로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생명

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

- 첨단과학 기술도시에 어울리는 신교통 수단 및 관광정보를 개발하여 특색 있는 관광 매력물을 제공하는 관광도시 육성
- 미래의 위상변화에 적합한 시민 복지형 관광 소재를 개발하며 지역주민 중심의 개발 혜택을 창출하는 관광도시 육성

③ 개발 방향(4S)

□ SUPERB - DAEJEON TOURISM VISION 2020

- 대전 비전 2020과 발맞추어 대전 관광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대전 관광의 위상을 표명

< 표 1 - 40 > SUPERB-DAEJEON TOURISM VISION 2020

4S 대전 관광개발 중점 목표		
Science	첨단과학도시로서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	연구단지 및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Spa	온천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개발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Sustainable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광자원 개발	생태관광 및 구도심 활성화
Special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된 관광자원개발	신규 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활성화

(2) 추진전략

① 도시생태환경과 관광의 공존

- 도시속의 자연(man-made nature in city)과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라는 전개 방향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 유지, 보전하는 관광개발
- 도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을 생태공원화 하여 자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여가공간을 창출, 이용자의 녹피감(綠被感)과 쾌적성을 제고

- 개발과 시공, 이용과 관리에 따른 제반적인 보전대책을 전제로 대청호, 보문산 주변의 생태환경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를 확보

② 도시관광 기반시설의 완성

- 도시의 복합적 기능을 배경으로 도시환경 자체가 주요한 매력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시의 구조와 기능, 이미지를 특성화
- 광역교통수단의 통과지로서 국가행정 중추기능을 분담하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선도기능을 지원할 관광도시로의 역할 재정립
- 서해안개발권, 금강유역개발권, 백제문화권, 중원문화권, 내포문화권 등 대전을 둘러싼 대형사업의 배후중심 역할을 소화

③ 도시형 관광상품의 적극적 개발

-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과 복원 및 신규 관광자원의 창출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높은 선진형 도시관광 상품을 개발
- 내 고장 마케팅(marketing place) 전략차원에서 대전만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매력성을 도출해 내고 이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

④ 도시형 관광 이미지의 구축

- 국제적으로 경쟁력 높은 도시정체성(city identity)을 발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차별화하는 관광 이미지 제고 방안을 도출
- 도시의 상품화(city selling)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제반적인 추진책 및 지원책을 모색

⑤ 도시민 복지관광의 구현

- 도시민 여가수요에 대비한 공원녹지 공간의 확충과 동시에 기존 공원시설을 이 용한 각종 이벤트의 개최 및 도시민을 위한 쾌적성(amenity) 향상 방안을 검토
- 도시민이 연령별, 계층별, 소재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안점 을 두고 도시복지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탐구

⑥ 도시지역간 균형개발의 수단화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반적인 수단책으로 써 관광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간 형평성 안배에도 유의
- ‘지역주민이 포함된 관광개발’(indigenous tourism development)이 될 수 있도록 접 근하되 관광의 비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

⑦ 도시관광형 관리체계의 정비

- 도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내부의 해결과제와 외부지향적인 진흥책을 검토 하여 바람직한 선진형 관광관리체계 방안을 제시
- 안전성 확보방안과 관광안내 정보 서비스의 개선, 디지털형 관광관리시스템, 기 타 미래지향적이며 선진적인 조직 및 법률정비 방안 등을 모색

(3) 개발권역의 설정

- 개발사업의 추진 주체와 개발 효과에 따른 편익의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5개의 행정구역별로 권역을 설정하되 각 권역별로 특징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 여함과 동시에 기타 협력사업의 도출을 용이하게 유도

< 표 1 - 41 > 권역 설정 요약표

구분	지역 특성				관광 특성	
	행정 구역	계획인구 (2016년)	중심생활권	지역현안	검 토 기 능	주 요 검 토 과 제
특구권	유성구	44 만명	2개 지구 (유성,진잠) 9개 생활권	· 세계적 은천휴양지 조성 · 국제적 과학연구 단지조성	대전도시관광의 거점지 기능 (Entertainment Zone)	· 연구단지 관광상품화 · 건강페스티벌 활성화 · 갑천을 활용한 수상레저상품 - 경정장, 워터파크 · 유성장 활성화 · 구즉목마을 육성 · 노천탕 건립
중부권	중 구	32 만명	2개 지구 (유천동, 서 대전4가) 5개 생활권	· 도심활성화 · 보문산활용	상업적/지역주 민형 여가공간 (Commercial & Community Zone)	· 보문산 관광벨트화 사업 - 레고랜드 및 전래동화나라 - 가족형 휴가촌 조성 -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 청소년 여가문화광장 조성 · 패션특화거리 조성 · 한밭종합경기장 활성화 사업
동부권	동 구	38 만명	3개 지구 (대전역, 용 전동, 기타) 7개 생활권	· 도심공동화 · 도시근교농 업 및 생태 공간유지	전통도시적 교 통관문기능 (Traditional & Transfer Zone)	· 전통재래시장의 관광특화 - 한약, 한복, 잡화 등 · 추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 산내 와인단지 조성 · 만인산 자연학습원 개발 · 세천유원지 재개발 사업
서남부 권	서 구	68 만명	2개 지구(용 문동,도마동) 7개 생활권	· 행정주거 중심지 육성 · 전원문화 공간의 확보	거점배후지원 (Behind Supporting Zone)	· 갑천문화제 활성화 · 쇼펍거리 활성화 · N세대 벼룩시장 · 첨단문화산업 활성화 · 서구 5경 활성화
북부권	대덕구	28 만명	2개 지구 (대덕, 신 탄 진) 5개 생활권	· 산업지대의 정착화 · 대청호 보전 개발	역사문화적 자연공간기능 (Heritage Environment Zone)	· 계족산 역사문화 관광개발 - 청소년 야영마을 조성 - 야생동물 관찰장 설치 - 장동 한막마을 조성 · 산디 민속마을 단지조성 · 신탄진 봄꽃축제 활성화

- 기존의 상위관련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역별 해당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도심 지역과 원도심 지역간의 연계, 지역간 관광자원 활용도와의 관계 및 기 타 향후 교통계획,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정도, 지역숙원사업 등을 수용할 수 있 는 차원에서 5개 해당 행정구역별로 개발권역을 설정

< 그림 1 - 19 > 행정구역별 개발권역

